

碩士學位論文

濟州學 定立을 위한 基本 用語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順 子

2004年 12月

濟州學 定立을 위한 基本 用語 研究

指導教授 姜 榮 峯

金 順 子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順子の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目 次

Abstract

I. 緒 論

- 1. 研究 目的 1
- 2. 研究 範圍와 方法 3

II. 本 論

- 1. 地 名 6
 - 1.1. 한라산 6
 - 1.2. 영 실 12
 - 1.3.天池淵 17
 - 1.4. 선흘곳 19
- 2. 人 名 21
 - 2.1. 崔 溥 21
 - 2.2. 徐 憐 23
 - 2.3. 李 檣 24
 - 2.4. 愼哉祐 27
- 3. 口碑傳承 30
 - 3.1. 선문대할망 30
 - 3.2. 이어도 33
 - 3.3. 잠 너 36
 - 3.4. 참꽃나무 39
- 4. 觀念語 42
 - 4.1. 서귀포칠십리 42
 - 4.2. 女 多 44
 - 4.3. 육 지 48
 - 4.4. 중산간 52

III. 結 論 54

- 참고 문헌 61



<Abstract>

Study for Basic Terms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tudies

Kim Soon-ja

Jeju Studies, which is a science dealing with something relating to Jeju, such as Jeju history or culture, is attracting the interest of the public. Not only scholars but also those in government are publishing materials related to Jeju Studies. In addition, the academic range of Jeju Studies is expanding, and the number of its researchers is increasing.

However, In the field of Jeju Studies mostly depend on previous research and materials without the right understanding of Jeju Studies or the examination of authenticity of the references. If not these studies will end up with false conclusions and drift from the historical truth.

This thesis intends to correct the errors in the studies of Jeju Studies and presents correct terms as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system of Jeju Studies correctly. I carefully entitle this thesis 'Study for Basic Terms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tudies' to show my intention to examine and confirm the essential texts for Jeju Studies. Futhermore, this thesis closely investigates academic work excavated or carried out up to now to prevent the coming generations from making any more errors.

The basic terms discus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are as follows:

Place Name: Hallasan, Yeongsil, Cheonjiyeon, Sunheulgot

Person's Name : Choe Boo, Seo Ryun, Yi Goe, Shin Jae-woo

Oral Tradition: Sunmoondaehalmang, Yiyeodo, Jamnyeo, Chamkkochnamu,

Abstract Word: Seogwipochilsibri, Yeoda, Yukji, Jungsangan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historical investigation using old texts relating to Jeju such as Tamlaji ('Records of an ancient Jeju Island'),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ike Chosunwangjoshillok ('Historical Record of the Chosun Dynasty'), Korean dictionaries, and so on to understand the actual aspect of records relating to Jeju. Through the study, I am able to present errors and corrections for them, and standardize terms used in various ways.

I argue that we should understand implied meanings excluding guessing or assuming from the study, and we also should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references and compare them with the original copies. Moreover, I emphasize that we need to discuss the rights or wrongs of the contents of texts themselves and give a clear definition to terms which do not have a solid one yet.

Since Jeju Studies is the science dealing with all aspects of Jeju includ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systematically, I suggest that we try to bring the institutes together and establish a 'Library for Materials of Jeju Studies' (a tentative name), where we can collect all kinds of materials for Jeju Studies.

I. 緒 論

1. 研究 目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유문화와 예술, 언어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학·부산학·충청학·경기학·제주학 등 지역 이름이 붙은 학문이 몇 년 사이에 잇따라 등장하는가 하면, 지역학 이름을 딴 연구소나 학회가 생기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 기관도 여기에 뛰어들어 지역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학’이 서울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¹⁾ 학문이라고 한다면, ‘제주학’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등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²⁾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학’은 제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 향토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독립 학문인 셈이다.

‘제주학’이란 이름은 石宙明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36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곤충채집 차 제주를 다녀간 이후, 1943년 3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 서귀면 토평리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방언과 민속, 동식물, 농축산, 정치, 경제, 문화 등 제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는 6권의 자료집³⁾으로 묶였다. 그는 《濟州島關係文獻集》에서 “濟州島를 越等하게 많이 다룬 學者로는 植物學의 中井猛之進, 濟州島學의 石宙明, 社會學의 善生永助, 動植物學의 森爲三, 方言學의 小倉進平 5氏를 들 수가 있겠다.”⁴⁾라 하여 자신의 학문 분야를 ‘濟

1)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규정안 중.

2) 사단법인 제주학연구소 설립취지문 중.

3) 석주명이 남긴 6권의 자료집은 제주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석주명은 6권의 제주 총서를 계획했는데 생전에 서울신문사에서 《濟州方言集》(1947), 《濟州島生命調査書》(1949), 《濟州島關係文獻集》(1949)을 내었고, 훗날 동생인 복식학자 石宙善에 의해 보진재에서 《濟州島隨筆》(1968), 《濟州島昆蟲相》(1970), 《濟州島資料集》(1971)이 출간되었다.

4) 石宙明, 《濟州島關係文獻集》, 서울신문사 출판국, 1949, p.244.

州島學'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제주학'은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제주학에 대한 연구는 학자 개개인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⁵⁾을 비롯하여, 사단법인 제주학회⁶⁾, 사단법인 제주학연구소⁷⁾, 사단법인 제주전통문화연구소⁸⁾ 등이 생기면서 본격화되었다. 또 행정 기관의 주도로 제주문화예술재단⁹⁾과 제주문화원¹⁰⁾ 등 문화 기관과 단체도 설립되어 제주학에 대한 중요성도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다. 제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고조와 영역 확산은 제주학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제주도 관련 문헌 자료와 연구물을 속속 출간하고 있는 데 큰 힘을 입고 있으며, 새롭게 제주학 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지향해야 할 연구 목적과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선행 자료와 연구에만 의존하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史實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지명·인명을 비롯한 잘못된 용어를 양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은 '은하수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높은 산'이기 때문에 한자로 '漢拏山'으로 쓰면서도 漢拏山의 '拏'字가 '잡을 나'字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 의심 한번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다. 金綴의 시 제목도 문헌에는 분명 <瀛室詩>인데 어느 순간 '瀛'이 '靈'으로 둔갑하여 <靈室詩>로 바뀌었고, 節婦巖을 세상에 알린 신재우 관관도 150여 년 전 인물임에도 '愼裁祐'·'愼裁佑'·'愼裁祐'·'愼哉祐' 등 대여섯 개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김녕굴 전설의 주인공 '徐隣' 관관과 藏修堂을 건립한 '李繪' 목사도 이름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音部에 이끌린 결과 각각 '서린', '이회'로 읽어, 그런 내용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인식

- 5) 탐라문화연구소는 1982년 설립되었고, 《濟州說話集成》《耽羅志》《耽羅誌草本》 등 문헌 자료 발간과 기관지 《耽羅文化》를 발간하고 있다.
- 6) 제주학회는 1978년 제주도연구회로 출발해 1996년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을 표방하며 제주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기관지 《濟州島研究》(24호) 발간과 제주도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7) 제주학연구소는 1997년 12월 24일 설립되었다. 그동안 기관지 《濟州學》을 4호까지 냈고, 마을조사와 옛 지명 조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 8) 제주전통문화연구소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제주도큰굿자료》 등의 자료 발간과 시민강좌 등을 펼치고 있다.
- 9)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는 제주학 정립을 위한 문화재 발굴과 자료집 발간, 학술발표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자모임을 꾸려 연구발표회도 갖고 있다.
- 10) 제주문화원은 제주 관련 문헌자료들을 발굴,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南槎日錄》《知瀛錄》《續陰晴史》 등 10여 권의 제주학 관련 향토자료를 펴냈다.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는 제1차 문헌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로 쓰이는 용어는 통일하고 잘못 전해지는 내용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研究 範圍와 方法

이 글은 제주학 영역 중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제외한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한정한다. 또 인문·사회과학 분야 가운데서도 지명·인명·구비전승·관념어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에 따른 4개 항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 名; 한라산·영실·天池淵·선흘곶

人 名; 崔溥·徐憐·李禧·愼哉祐

口碑傳承; 선문대할망·이여도·잠녀·참꽃나무

觀念語; 서귀포칠십리·女多·육지·중산간

地名에서, ‘한라산’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주도는 한라산이요,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영실’은 오류가 많다는 점, ‘天池淵’과 ‘선흘곶’은 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다. ‘한라산’과 ‘漢拏山’의 쓰임을 문헌 자료와 사전류·구비전승 자료를 통해 어원적 고찰을 시도하고, ‘瀛室’과 ‘靈室’, ‘天池淵’과 ‘天地淵’, ‘선흘곶’과 ‘동백동산’ 가운데 살려 써야 할 지명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人名에서, ‘崔溥’는 우리나라 최초로 표해록을 남겼다는 점, ‘徐憐’은 전설의 주인공이라는 점, ‘李禧’는 藏修堂을 건립하고 제주도 학문을 일으키는 데 이바지한 점, ‘신재우’는 기념물 절부암을 명명한 제주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역사적 인물이 잘못된 문헌 인용과 원전 확인 없이 답습한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한편, 올바른 이름을 제시할 것이다.

口碑傳承은 용어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膾炙된다는 口碑文學의 성격을 고려한 범주이다. 命名法 또한 口碑傳承에 속하기 때문에 ‘잠녀’와 ‘참꽃나무’를 포함

시킨다. ‘선문대할망’은 제주도 창조설화와 관련이 있는 거녀 설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여도’는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이라는 점, ‘잠녀’는 제주도 여성의 근면성과 그 자체가 세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 ‘이여도’와 ‘이여도’는 대표 용어를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행정과 기관, 학자들 사이에서 쓰임새가 제각각인 ‘잠녀·잠수·해녀’와 제주도 상징 꽃 이름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한다.

觀念語는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어휘라는 기본 의미에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서귀포칠십리’는 국민가요인 동시에 서귀포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점, ‘女多’는 三多 가운데 여느 곳에는 없는 제주의 實相이라는 점, ‘육지’는 동경과 이상의 대상이며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중성을 지닌 용어라는 점, ‘중산간’은 개발되지 않은 원형의 땅이라는 제주도적 의미를 고려하였다. 여기에서는 실증적 자료와 함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記述의 순서는, 地名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人名은 生沒 연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口碑傳承과 觀念語는 가나다 順으로 하였다. 각 범주에 따른 논의 사항을 4개씩 선택한 것은 作爲의인 안배에 불과하고, 각 항들은 典範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地名인 경우, 마을 이름만 하더라도 행정 개편에 따른 이름과 문헌, 옛 지도의 이름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어 그 典範만을 보이고 나머지는 제주학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다른 범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주된 논의 대상이 된 용어에 대하여 문헌 탐색이라는 고증학적 방법을 이용해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원용할 문헌은 다음과 같다.

- 《漂海錄》(崔溥, 《錦南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 《濟州風土錄》(金淨, 《冲庵集》, 民族文化推進委員會 影印本)
- 《南溟小乘》(林悌, 濟州島史研究會 影印本)
- 《南槎錄》(金尙憲, 《濟州史資料叢書(1)》, 濟州道 影印本)
- 《濟州風土記》(李健, 濟州學연구소 影印本)
- 《耽羅志》(李元鎭,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 《南槎日錄》(李增, 濟州文化院 影印本)
- 《知瀛錄》(李益泰, 濟州文化院 影印本)

《南宦博物》(李衡祥,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耽羅別曲》(鄭彥儒, 濟州文化院 影印本)
 《漂海錄》(張漢喆, 日本 新幹社 影印本)
 《耽羅錄》(申光洙, 《石北先生文集》, 韓國文集編纂委員會 影印本)
 《濟州大靜旌義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濟州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耽羅誌草本》(李源祚,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耽羅錄》(李源祚,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耽羅誌》(張寅植,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梅溪先生文集》(李漢震, 제주문화 影印本)
 《續陰晴史》(金允植, 濟州文化院 影印本)
 《耽羅誌》(南萬里,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耽羅紀年》(金錫翼, 瀛洲書館)
 《增補耽羅誌》(淡水契)

나아가 《高麗史》《朝鮮王朝實錄》《新增東國輿地勝覽》《增補文獻備考》와 같은 歷史書類, 《濟州島民謠研究》《濟州島巫俗資料事典》《濟州道傳說誌》《濟州說話集成》 등 구비문학자료, 《표준국어대사전》 등 國語辭典類, 《大韓植物圖鑑》 등의 圖鑑類도 이용될 것이다.

문헌 탐색을 통하여 실상과 함께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통일해야 할 용어나 잘못된 용어는 그 까닭을 밝혀 바로잡으려 한다. 또 어원적으로 풀 수 있는 용어는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고, 관념어의 경우는 확실한 개념을 제시하려 한다.

논제를 ‘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 용어 연구’라 한 데는 제주학의 기초가 되는 原典을 定礎 다지듯 자세하게 살피고 차근차근 확인해보자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다. 이는 제주학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차 3차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정정하고, 혼란을 주는 용어는 통일해 올바른 史實을 전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낱낱이 점검할 계제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오류를 후세에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警戒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II. 本 論

1. 地 名

사람들은 땅에 정착해 살면서 알맞은 地名을 정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다. 地名은 地番과 같은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는 무형의 문화 유산이다. 때문에 지명은 우리 조상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일상생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지명을 연구하면, 지역 주민의 언어·풍속·의식·도덕·종교 등 사회 발달과 그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문화 발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의 어원적 분석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회적·행정적으로 작용하였는가를 구명해 볼 수도 있다.

일종의 언어인 지명은 그 구조와 의식 또는 自然觀과 世界觀 등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마련이지만, 예전 것을 지켜 나가려는 保守性도 함께 지닌다.

여기에서 논의 대상은 ‘한라산·영실·天池淵·선흘곶’이다.

1.1. 한라산

‘한라산’은 鎮山이다. 제주인의 삶의 모태로 갖가지 설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산이다. 한자어로 ‘漢拏山·漢羅山·圓山·頭無岳·釜岳·釜山’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삼신산의 하나로 ‘瀛洲山’으로도 불렸다. 민간에서는 ‘할락산·할로산·하로산·한로산·한로영주산·할로영산’ 등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한라산’이란 이름은 《高麗史》에 처음 등장한다. 《高麗史》권 57 地理2條에 보면 “鎮山漢拏在縣南一曰頭無岳又云圓山其嶺有大池”란 글귀가 보이는데, 오래 전부터 ‘頭無岳’과 ‘圓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山川條에도 漢拏山에 대해 언급했다. ‘漢拏’란 이름은 雲漢 즉, 銀河를 끌어당길 만큼 높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頭無岳’은

봉우리들이 모두 평평해서, ‘圓山’은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둥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漢拏山在州南二十里鎮山其曰漢拏者以雲漢可漢引也一云頭無岳以峯峯皆平也一云圓山以穹窿而圓也其巔有大池人喧則雲霧咫尺不辨五月猶雪在八月乃襲裘¹¹⁾

金淨의 《濟州風土錄》에도 “山峯之頂必凹如鑊陷成泥潦峯峯皆然故謂之頭無岳”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산봉우리에는 반드시 가마처럼 우묵하게 빠져 들어간 수렁이 있고, 봉우리마다 다 그러하기 때문에 ‘頭無岳’이란 명칭이 붙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토대로 쓴 《耽羅志》에선 ‘漢拏山’, ‘圓山’ 외에 ‘釜岳’이란 별칭이 더해졌다. 산봉우리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닮았기 때문에 ‘釜岳’이란 다른 이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漢拏山在州南二十里鎮山其曰漢拏者以雲漢可拏引也一云頭無岳以峯峯皆平也一云圓山以穹窿而圓也一云釜岳以山之頭皆有池似貯水器也峻極于天雄據數百餘里山巔有池¹²⁾

《增補文獻備考》 제22권 輿地考10, 山川4 濟州 漢拏山에는 ‘釜山’이란 이름이 더 보인다. 봉우리의 맨 꼭대기는 모두 평평하고 둥그스레하며 못이 있는데 마치 솥[釜]과 같아서 釜山이라고 부르고, 속칭 솥[釜]을 頭無라고 하기 때문에 頭無山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三神山의 하나로 불렀던 瀛洲山에 대한 기록도 있다.

濟州漢拏山一名圓山在南二十里以其雲漢可攀而拏也故名峰頭皆平圓有池似釜故又名釜山俗稱釜爲頭無故又名頭無峻極于天雄據數百里山巔有池徑數百步曰白鹿潭白鹿群遊於此由大靜縣有一鳥道登其絕頂可觀南極老人星云世以此山爲三神山之一卽瀛洲也¹³⁾

이상의 예에서 확인하였듯이 ‘한라산’의 한자 명칭은 산 형태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한라산’을 어떻게 불렀을까. 제주도민의 의식이 투영된 巫歌와 民謠 속에 등장하는 ‘한라산’은 언중들이 불렀던 ‘한라산’에 대한 현실음이 어떠했

1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山川條 참조.

12)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山川條 참조.

13) 《增補文獻備考》 22권 輿地考10, 山川4 ○全羅道○慶尙道 濟州漢拏山 참조.

능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巫歌인 경우는 ‘할라·할락·할로·하로·한로·한라’¹⁴⁾ 등으로 불렀다. 그 예는,

할라;

아들랑 나건 신산만산할라공이엿 일름 지우곡 딸랑 나건 할락텍이엿 일름을 지우라(이공본풀이, p.126)

할락;

아들랑 나건 신산만산할라공이엿 일름 지우곡 딸랑 나건 할락텍이엿 일름을 지우라(이공본풀이, p.126)

제주남방국(濟州南方國)을 나올 때 할락산(漢拏山) 테역장오리 물장오리 좌정(坐定)허여(고성 신양 수산본향당본풀이, p.686)

할로;

할로영주산(漢拏瀛洲山) 어스승은 단골머리(세경놀이, p.390)

신산국을 좇춘 할로영주산(漢拏瀛洲山) 관테청(觀德亭) 마당으로 ㄱ으니믈로(월정본향당본풀이, p.652)

하로;

수산(水山) 올웨믈루가 좌정(坐定) 흘만흐다허여 좌정훈 하로산 삼천벵매또 일만팔천초깃발(고성 신양 수산본향당본풀이, p.688)

큰성님(伯兄-)은 수산(水山里) 올웨믈루하로산(-漢拏山), 둘첸 물미(水山里) 제석천왕하로산(帝釋天王漢拏山), 깃첸 예촌(禮村里) 삼시백관또하로산(山神百官-漢拏山), 닛첸 호근이(好近里) 서천맛하로산, 다섯첸 중문이하로산(中文里漢拏山), 으숫첸 색달리하로산(穉達里漢拏山), 일곱첸 열위하로산(狷里漢拏山), 으덥첸 통천이(通泉洞) 고나무상태자하로산(-上太子漢拏山), 아옴찬 날웨(日果里) 제석천왕하로산(帝釋天王漢拏山)(색달리본향당본풀이, p.750)

한로;

제주 와서 한로영주산(漢拏瀛洲山) 영기 귀경(靈氣求景)흐젠 흥 계 이 행원믈슬(杏源里) 와서 이 고생(苦生)을 허여지는구나(행원남당본풀이, p.658)

한라산;

제주도(濟州島) 들어와서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에 진(陣)을 쳤다(칠머리당본풀이, p.597, 퀘네기당본풀이, 백주또본풀이, 금상님본풀이 등에도 한라산으로 표기)

등에서 볼 수 있다.

14)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126, p.390, p.597, p.652, p.658, p.686, p.688, p.750 등 참조.

민요인 경우에는 ‘한락산·한로산·할로산’¹⁵⁾으로 전사되어 있다.

할로산;

할로산으로 불리는 물은 베릿내로나 느리건마는(‘맷돌·방아 노래’ 노래 중에서, p.46, 179번 민요)

한락산;

한락산으로 불리는 물에 곤살 씻은 밥을 흐난(‘맷돌·방아노래’ 중에서, p.86, 333번 민요)

한락산 고고리랑 어디 비여 뵈 나 또꾸망에 헤 비추웁수광(‘맷돌·방아노래’ 중에서, p.124, 478번 민요)

한로산;

한로산을 등에 지곡 대천바당을 집을 삼양(‘해녀노래’ 중에서, p.228, 873번 민요)

한로산 허리엔 시러미 익은송 만송(‘오돌또기’ 중에서, p.328, 1144번 민요)

한라산;

한라산 중허리 경치가 좋고 (‘꽃 베는 노래’ 중에서, p.308, 1119번 민요 중)

한라산에 간 보난 아달아긴 장기 두곡 딸아긴 노님험더라(‘동요’ 중에서, p.370, 1258번 민요 중)

그렇다면 ‘한라산’의 한자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李崇寧의 《新羅時代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¹⁶⁾을 보면, 신라시대의 지명 표기법은 표음주의 체계로 이뤄졌는데, 어두와 어중에 오는 ‘na’를 표기할 때는 ‘奈生/奈吐/月奈山’ ‘乃忽/豆乃山’처럼 ‘奈’와 ‘乃’가 쓰인 반면, 어중·어말에 ‘~r(l)a~’의 표기는 ‘羅’字가 온다. 예를 들면 ‘加羅城/沙羅鄉/斯羅/耽羅/毛羅’처럼 “羅字가 대체로 모음간이나 ‘l(r)’에 후행한 듯이 느껴진다. 특히 이 점을 특기하여 둔다.”¹⁷⁾고 강조하고 있다.

신라시대 지명의 표기체제에 의하면 고대의 한라산 한자 借字 표기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제11권 태조 6(1397)년 3월 8일(辛酉) 기사 御製詩 ‘耽羅’에 실려 있는 ‘漢羅山’의 한자표기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1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嘲閣, 1965, p.46, p.86, p.124, p.228, p.308, p.328, p.370 등 참조.

16) 이승녕은 이 논문에서 지명과 인명 향가의 표기법 체계 등을 통해 신라시대 표기법 체계를 세웠다. 이승녕은 지명 개칭은 신라 경덕왕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신라시대의 표기법 결정은 이 지명의 고찰에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17)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 塔出版社, 1978, p.49 참조.

耽羅 蒼蒼一點漢羅山遠在洪濤浩渺間人動星芒來海國馬生龍種入天閑地偏民業猶生遂
風便商 帆僅往還聖代職方修版籍此邦雖陋不須刪(밑줄 필자)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문헌상의 ‘한라산’ 명칭과 무속 자료와 민요 등 민간에서 불렀던 현실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헌상에 등장하는 ‘한라산’에는 한자음 ‘拏(나)’가 쓰이고 있지만 민간에서 실현되는 ‘한라산’에서는 ‘나’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에서 쓰는 ‘라’음이 어떻게 해서 ‘漢拏山’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음에 충실하고 고대 지명표기 체제를 준용해 한자음을 차용했다라면 지명에 ‘잡을 나(拏)’字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拏’의 음이 ‘나’인 점을 보면, 한글 표기는 ‘한나산’이라야 맞다. 하지만 현실음을 고려할 때는 ‘한나산’으로 쓸 수 없어 한자보다는 한글로 ‘한라산’이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늘의 운한(漢)을 잡을[拏]만큼 높은 산이라는 유래는 한자표기를 ‘漢拏山’으로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이칭도 산의 형태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어사전은 ‘한라산’을 어떻게 표기하고, 발음하고 있을까.

《국어대사전》(1982, 이희승 편저)에는 ‘한라산’과 ‘한나산’이 올라 있지만 ‘한라산’은 ‘한나산’이 변한 말이라고 되어 있다. 《국어대사전》(1999, 운평어문연구소 편)과 《큰사전》(1957, 한글학회)은, ‘한나산’은 ‘한라산’의 본음(본말)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은 한나산은 ①한라산의 잘못, ②한라산의 북한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말큰사전》(1992, 한글학회)에는 ‘한라산’과 ‘한나산’이 표제어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식물 이름으로 ‘한라산-비장이’가 등재되어 그 표기가 ‘한라산’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말대사전》(1987,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는 ‘한나산’으로 표기해 놓고 발음을 [할라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朝鮮語大辭典》(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에는 ‘한나산’은 ‘한라산의 原(원음: 필자)’으로 풀이하고 있어, 사전마다 다르다.¹⁸⁾

18) 국어사전에 등재한 한라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에는 ‘한라산’에 대해 “국립공원의 하나. 제주도 중앙의 주봉. 산 위에는 둘레 3km, 직경 500m의 대분화구(大噴火口)였던 백록담(白鹿潭)이 있고, 산허리에서 산기슭에 걸쳐서 300여 개의 측화산(側火山)이 있음. 화산체는 주로 제3기말에서 4기초의 암류와 그 후의 현무암(玄武岩)으로 이루어졌으며, 1002년과 1007년에 분화하여 많은 용암을 분출시켰는데 지금은 휴화산(休火山)임.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치며, 북쪽 기슭에 있는 삼성혈(三姓穴)은 도민(道

字典에도 ‘拏’를 ‘라’로 발음한 경우는 한 군데도 보이지 않으며, 방언과 운모(韻母)에 따라서 [나/냐/녀]로 읽고 있다. 《漢字古音辭典》(B. Karlgren)¹⁹⁾에는 ‘拏’를 고대 중국음으로 [na], 만다린 방언으로 [na], 광둥(廣東) 방언으로 [nja]로 발음하고 있다.

그 외 ‘拏’字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洪武正韻譯訓》(1455); ‘麻韻’ 泥(나) 拏 女加切牽引也攬也作拏又魚韻 拏 同上又絲絮相 牽又魚韻
 ‘魚韻’ 泥(뉴) 拏 牽引亦作拏又麻韻 拏 同上韓愈聖德詩獸盾騰拏 又莒拏人名又麻韻
 《東國正韻》(1448); ‘歌韻’ 那(냐) 拏 又居韻 拏 上同又居韻
 ‘居韻’ 那(녕) 拏 又歌韻 拏 上同又歌韻
 《字典釋要》(1906/1949); 拏(녀)牽引잇글녀(魚) (나)義全○拘捕잡을나(麻)拏拿全
 《新字典》(1915); 拏(녀)相牽引맛당길(魚) (나)義同○拘捕잡을○罪相連引연좌될(麻)拏拿同
 《大漢韓辭典》(張三植 編, 1981); 拏 [集韻] 女加切 ①맛당길나(相牽引) ②잡을나(拘捕) ③연좌될나(罪相連引)

민)의 창조(創祖)인 세 신인(神人)이 용출한 곳으로 유명함. 참나무·산벚나무·단풍나무 등의 고목을 비롯하여, 삼대(三帶)의 식물이 울창함. 학술연구 자료의 수집 장소임. 1,950m”라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에는 “제주도 중앙에 있는 산. 참나무·산벚나무·단풍나무 따위의 식물이 자라며, 명승지로 삼성혈·백록담 따위가 있다. 국립공원의 하나이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1,950미터”. 한글학회 《큰사전》에는 “제주도(濟州島)에 있는 산. 높이 1,915m. 산 위에 백록담(白鹿潭)이 있음. 원말: 한나산=漢拏山”이라고 되어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에는 “한나산:[할라-]: 제주도에 있는 높고 아름다운 산. 불산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으로서 온 산에 검정뽕은바위가 퍼져있다. 높이는 1950메타인데 산마루에는 아름다운 백록담이 있다. 漢拏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나산이 금덩어리라도 쓸 놈 없으면 못 쓴다(금덩어리가 한나산만큼 쌓여있다고 해도 그것을 쓸 사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귀중한 인재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을 쓸 사람이 있어야 참된 빛을 나타내게 됨을 비겨 이르는 말)’라는 예문까지 제시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사전에 수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한라산’에 대한 뜻풀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혈이 한라산 내에 있는 명승지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한라산이 1002년과 1007년 두 차례 용암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헌 자료에는 한라산이 아니라 비양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한라산의 높이가 1,915m로 잘못 올라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허황된 정보도 있다.

19) B. Karlgren, 《漢字古音辭典》(原名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亞細亞文化社, 1975.

字典이나 韻書의 내용을 보면, ‘拏’ 聲母 ‘泥’[나·뉴]나 ‘那’[나·녀]에 속해 있어서 ‘한라산’의 ‘라’는 ‘拏’로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한라개승마·한라꽃창포·한라돌창포·한라습다리·한라장구채’ 등 한라산 특산 식물 이름만 보더라도 제주의 鎭山 이름은 한글로 ‘한라산’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영 실

‘영실’도 ‘한라산’의 별칭만큼이나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 ‘영실’은 한라산의 대표 절경으로, 제주 형성 설화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영실’은 또 누대에 걸쳐 기암괴석 등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기행문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그 명성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영실’에 대한 한자 표기가 각양각색이어서 표기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靈室’과 ‘瀛室’ 중 어느 표기가 맞는지 놓고 시비가 인 경우도 있다.²⁰⁾

‘영실’은 문헌에 따라 ‘靈谷·瀛室·瀛谷·靈室·靈谷洞’으로 나타나,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표기가 제각각이다. 또 ‘修行洞·行道洞’이란 속칭도 갖고 있으며, 기암괴석을 두고는 ‘五百羅漢·五百將軍·千佛峰·石羅漢’이란 별칭도 붙였다.

현전하는 문헌 중 ‘영실’에 대해 처음 기술한 것은 《南溟小乘》²¹⁾에 있는 ‘靈谷’이라는 표현이다. ‘靈谷’은 《南溟小乘》 1578년 2월 11일과 15일자 기사에 수록된 ‘遊五百將軍洞洞一名靈谷’, ‘靈谷洞’이란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靈谷’은 골짜기 이름으로 ‘五百將軍 골짜기’라고도 불렀다.

十一日風和日暖啼鳥相和向晚理荒屨使金禮英持大斧斫樹鑿冰開路先導或騎或步或藍輿往遊五百將軍洞洞一名靈谷層巒皎潔環作玉屏三道懸瀑倒瀉一壑其間有古壇壇上有獨樹桃花乃於壇上籍叢竹而坐俯視南溟一碧萬里眞島中第一洞天也又有奇巖人立於水邊山上者無

20) 제민일보, 2000년 9월 16일치. 한국예총 제주도지회는 ‘제25회 제주도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특선을 받은 이모 씨의 입상작 ‘瀛室奇巖’이 ‘靈室奇巖’의 오자라는 일부 주장만 믿고 낙선 처리했다가 ‘瀛室奇巖’이란 이름이 문헌상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낙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처럼 ‘영실’에 대한 한자가 ‘靈室’과 ‘瀛室’ 등으로 문헌에 따라 제각기 표현되어 있어 ‘영실’에 대한 바른 한자 표기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21) 林梯의 《南溟小乘》은 朴用厚 譯(제주문화, 1989), 제주문화원(2000)의 《옛 사람들의 登漢 攀山記》(林梯 <登漢攀山記>(김봉옥 역)), 金千亨 編著(2004) 《耽羅史料文獻集》(디딤돌), 제주도사연구회(1995)의 《濟州島史研究》(제4집) 등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편역 과정에서 원문이 누락되었거나 오자가 생긴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사연구회의 영인본을 인용하였다. 이 영인본의 원전은 후손인 林彩南(전북 고창) 선생이 소장한 필사본이다.

慮千百洞之得號想以此耶²²⁾

十五日香烟直上清旭照窓風暖鳥聲碎雪消春水來同遊皆樂曰今日之遊天所借也促飯戒行
過靈谷洞口巖巒新洗玉簪參差²³⁾

‘靈谷’은 《南槎錄》에도 보인다. 1601년 9월 24일 기사에 ‘路上望千佛峰一名行道
洞俗稱靈谷’ ‘自尊者庵至靈谷亦三十餘里’ 표현에서 ‘靈谷’을 찾을 수 있는데 ‘靈谷’이
‘千佛峰’과 ‘行道洞’의 속칭으로 쓰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路上望千佛峰一名行道洞俗稱靈谷諸峰怪石峭拔如衆佛拱手峰名以此²⁴⁾

又云白山根至尊者庵可三十餘里自尊者庵至靈谷亦三十餘里²⁵⁾

金緻의 <瀛室詩>²⁶⁾와 <遊漢拏山記>²⁷⁾부터는 ‘영실’의 한자 표기가 ‘靈谷’에서 ‘瀛
室’로 바뀐다. <遊漢拏山記>의 ‘瀛室’에 대한 기록은 ‘行六七里抵瀛室洞府頗寬敞此亦
古尊者基也’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묘사가 그럴듯하다²⁸⁾. <遊漢拏山記>
에서 비롯된 ‘瀛室’은 《耽羅志》 濟州牧 佛宇條 尊者庵 夾註²⁹⁾와 山川條 漢拏山에
인용된 어사 李慶億의 <瀛室遇雨詩>³⁰⁾에서도 보인다.

‘瀛室’은 《南槎日錄》³¹⁾, 《知瀛錄》³²⁾에서도 찾을 수 있다. 《知瀛錄》에서는 ‘瀛

22) 《南溟小乘》 2월 11일 기사 중.

23) 앞의 책, 2월 15일 기사 중.

24) 金尙憲, 《南槎錄》 9월 24일 기사 중.

25) 앞과 같음.

26) 李元鎮의 《耽羅志》 濟州牧 山川條 漢拏山에 “瀛室詩萬壑杉松一逕幽每逢佳處暫遲留峯頭怪
石羅千沸巖底清泉到十洲直下洞天騎白鹿笑看仙子跨青牛飄然迥出人間表自此仍成汗漫遊”. 羅
千沸는 羅千佛의 오기인 듯하다.

27) 앞의 책, 題詠條에 수록.

28) 使修淨前導重岡複嶺路甚危險或騎或步互相先後度密穿深漸入佳境行六七里抵瀛室洞府頗寬敞此
亦古尊者基也千尋蒼壁環擁如屏上有怪石狀如羅漢者五百有餘下有泉流泱泱淅淅聽之如琴筑聲.
앞의 책 題詠條 참조.

29) 尊者庵舊在漢拏山瀛室其洞有石如僧行道狀諺傳修行洞今移西鬱外十里許即大靜境也

30) 御史李慶億瀛室遇雨詩踏遍仙區載醉歸萬林烟雨暗霏霏山神挽我應相戲莫把簑衣被繡衣

31) 1680년 3월 20일 기사에 보임. 歸路入瀛室所謂五百將軍洞者也石峯競秀或如騎馬被甲者或如
執劔戟張幢幡者列立蒼壁上得名五百將軍者此也上洞爲瀛室懸崖千尺環擁如翠屏兩條水瀑如鎔
銀掛諸百丈壁也下爲兩溪鳴玉而流信山中第一勝景也…到尊者庵朝飯此庵舊在瀛室其洞有石如
僧行道狀諺傳修行洞今移西麓外十里許大靜境只有遺墟回抱幽邃則有之清絕之致百不及於瀛室

室'과 함께 '瀛谷'이란 표기도 보여 앞선 문헌의 '靈谷'과 비교가 되는데, 저자 李益泰는 '瀛谷'³³⁾을 '耽羅十景'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瀛室'은 《南宦博物》³⁴⁾과 鄭彥儒의 《耽羅別曲》³⁵⁾에서도 접할 수 있다. 《耽羅別曲》보다 앞선 자료인 李奎成의 《耽羅地圖屏序》³⁶⁾에는 '靈谷'이 보인다.

'靈室'은 《濟州大靜旌義邑誌》³⁷⁾ 濟州牧 形勝條에 '靈室洞'이란 이름이 처음 보이기 시작해 《耽羅誌草本》³⁸⁾에서부터 일반화한다. 李源祚는 '靈室' 이외에도 '靈谷·瀛室'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 《耽羅地圖并識》에 수록된 <耽羅地圖>³⁹⁾에서는 '靈谷'을 쓰는 반면, 《耽羅錄》에서는 '靈室'⁴⁰⁾과 함께 '瀛室'이란 표기도 사용함으로써 독

冲庵記勝無乃舊庵耶. 여기에서 冲庵은 洪裕孫을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충암기에는 영실에 대한 표현이 없고, 책 속의 인용문은 洪裕孫의 <尊者庵改構侑因文> 내용이다.

- 32) 1696년 8월 16일 기사 중. 西下山腰過七星岩修行窟穿松林二十里有瀛室岩巒奇異畱翫良久又行十里卽尊者庵只餘破屋數楹添作假家以爲遊山特中火之處
- 33) 瀛谷 在漢拏西麓大靜縣境自白鹿潭南下西轉越崗渡壑二十五里懸崖絕壁削立層層奇巖怪石羅列其巔壯似將軍帶劍婉如美女整鬢僧拜而仙舞虎蹲而鳳翥大小高低無非物像俗稱五百將軍洞或稱千佛峯一名行道洞其下湧泉成溪長流不竭洞壑寬平松翠參天牧場縱橫雲錦遍山古有小刹今移爲尊者庵廢址階礎尙宛然蓋漢拏皆石山而巖壯獨此一面靈峯排玉如楓嶽之象香城亦可異也
- 34) 地誌條 참조. 西鬱五十里外有曰瀛室洞府俗名五百將軍洞也千尋蒼壁環爲列屏上有怪石狀如羅漢者凡五百下有瀑傾瀉一壑…
- 35) …○瀛洲가 奇異함이, 三神山의 하나이며 ○老人星 발근 光彩 壽域을 여러노코 ○金剛草 푸른 밋치 白髮을 검게하니 ○넋날의 秦皇漢武, 못보아 遺恨어라 ○너희난 仙分조하, 이곳에 生長하여 ○瀛室을 견해 두고, 白鹿潭 우헤안저 ○流霞觴 가듯 부어 老仙과 酬酌하니 ○烟火食不關커든 달은 念慮 잇슬소가 ○닷툰 것이 무엇이며, 求할 것이 무엇시니 ○높은 峰 울너서서, 塵土를 구버보면 ○큰바다 잔만하여, 世上이 春夢이라… (白圓과 반점은 그대로 두었고, 읽기 편하게 띄어쓰기를 하였다.)
- 36) 靈谷卽漢拏山絕頂西崖奇峯峭壁羅列一面號千佛峯層層怪石疊疊奇岩壯似將軍帶劍婉如美人整鬢僧拜而仙舞龍飛而虎蹲其下湧泉成溪長流不竭洞壑寬平松翠參天
- 37) 濟州牧 形勝條 靈室洞 在漢拏西南腰山腰千尋蒼壁環如屏障五百怪石狀如羅漢 참조.
- 38) 濟州牧 形勝條 靈室 在漢拏西南山腰削壁千仞怪石列立號五百將軍或稱石羅漢, 李源祚詩拏山畜氣深高厚稱其德終難掩奇峭崑崑遂外闕南產粗而黑獨也全體白元章如可拜不舍靈室石仙人本好奇造物亦戲劇將軍與羅漢嚇語傳自首草木不敢生風雨不敢泐留待後天看四地編邵極而我亦近名惜哉滄海隔能來爲爾宿露坐寒山夕近啼未甚異遠看果殊格怪底雲月夜掩翳始本色回思未見時耳聞勝目擊奇語後來人慎莫爲物役
- 39) 靈谷卽漢拏山絕頂西崖奇峯峭壁羅列一面號千佛峯層層怪石疊疊奇巖壯似將軍帶劍婉如美人整鬢僧拜而仙舞龍飛而虎蹲其下湧泉成溪長流不竭洞壑寬平松翠參天
- 40) 李源祚 <遊漢拏山記> 중. 又稔聞靈室之勝有石羅漢鬼剎神刻遊觀者從越岡望見少喧則風雨輒靈異云余意其近怪而諸人所邀…曰起起今日之遊樂乎靈室之風何如拏山之雲遷喬木而入幽谷鳥覩所謂五百將軍哉世之人以吾道爲高遠不可企…

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李源祚는 《耽羅錄》에서 ‘瀛洲十景題畫屏’도 썼는데 이때부터 ‘영주십경’과 ‘영실기암’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주십경은 瀛邱春花·正房觀瀑·橋林霜穎·鹿潭雪景·城山出日·紗峯落照·大藪牧馬·山浦釣魚·山房窟寺·瀛室奇巖이다.

‘瀛室奇巖’은 《梅溪先生文集》에서도 보인다. 梅溪는 ‘瀛洲十景’을 城山出日·紗峯落照·瀛邱春花·正房夏瀑·橋林秋色·鹿潭晚雪·瀛室奇巖·山房窟寺·山浦釣魚·古藪牧馬를 꼽고, 경치마다 자신의 시와 다른 문인들의 시를 수록해 놓았다.⁴¹⁾

南萬里는 《耽羅誌》에서 ‘靈室奇岩’을 포함한 제주의 빼어난 풍광 11경을 ‘濟州十一景’이란 이름으로 소개해 놓았다. 鹿潭晚雪·瀛邱春花·城山出日·紗峯落照·靈室奇岩·正房夏瀑·古藪牧馬·山浦釣魚·橋林秋色·龍淵夜泛·山房窟寺가 그것이다. 《濟州島實記》에도 <瀛州十景歌>란 제목으로 城山日出·瀛邱春花·橋林秋色·山浦釣魚·古藪牧馬·鹿潭晚雪·靈室奇岩·正房瀑布·山房窟寺·沙峯落照를 노래하고 있는데, 앞의 풍광들과는 표현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실기암’의 한자 표기는 李源祚와 李漢震이 ‘瀛室奇巖’, 南萬里와 《濟州島實記》가 ‘靈室奇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張寅植의 《耽羅誌》(東京大本)⁴²⁾에는 ‘靈室’과 ‘瀛室’이 혼효되어 나타나고, 崔益鉉의 <漢拏山記>⁴³⁾에 ‘瀛室’이 보인다. 이후에 등장하는 문헌과 자료에는 원본 내용과 상관없이 대부분 ‘靈室’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헌에는 ‘瀛室奇巖’이라 표기해 놓았지만, 누군가에 의해 ‘靈室奇巖’이라고 바뀐 후 ‘瀛室奇巖’과 ‘靈室奇巖’이 혼용되다가 ‘靈室奇巖’으로 굳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원본에는 분명 ‘瀛室’로 올라 있는데 번역본에는 ‘靈室’로 잘못 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다음은 문헌 속에 등장하는 ‘영실’의 한자 표현이다.

41) 李漢震의 <瀛室奇巖> 詩, 一室煙霞五百岩 奇形怪態摠非凡 僧依寶塔看雲杖 仙揖瑤瑤霧月衫 漢客窮河徒犯斗 秦童望海莫停帆 將軍或恐神機漏 默守靈區口自緘

42) 濟州牧 形勝條 靈室 夾註 ‘在漢拏西南山腰削壁千仞怪石列立號五百將軍或稱石羅漢’과 佛宇條 尊者庵 夾註 ‘舊在漢拏山瀛室其洞有石如僧行道狀諺傳修行洞今移西鬱外十里許即大靜境也’에 각각 ‘靈室’과 ‘瀛室’이 보인다.

43) 최익현은 1873(고종 10)년에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해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자신은 제주로 유배되었는데 1875(고종 12)년 2월에 방면되자 2월 27일 한라산을 올랐다. <漢拏山記> 중 ‘…行十里許至瀛室高頂深壑頭頭怪石森列雄威亦摠是佛形其數不但以百千計焉即名千佛巖亦所謂五百將軍也…’에 ‘瀛室’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문헌 속에 나타난 ‘영실’

문헌	영실	별칭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修行洞
《南溟小乘》(林梯, 1578)	靈谷(靈谷洞)	五百將軍
《南槎錄》(金尙憲, 1602)	靈谷	千佛洞 行道洞
<遊漢拏山記>(金緻, 1610)	瀛室	
<瀛室遇雨詩>(李慶億, 1620~1673)	瀛室	
《耽羅志》(李元鎮, 1653)	瀛室	修行洞
《南槎日錄》(李增, 1679~1680)	瀛室	五百將軍 修行洞 千佛峯
《知瀛錄》(李益泰, 1696)	瀛室 瀛谷	五百將軍洞 千佛峯 行道洞
《南宦博物》(李衡祥, 1704)	瀛室	五百將軍洞
《耽羅地圖并序》(李奎成, 1709)	靈谷	千佛峯
《耽羅別曲》(鄭彥儒, 1749~1751)	瀛室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경)	靈室洞	
《耽羅誌草本》(李源祚)	靈室	五百將軍洞 石羅漢 修行洞
《耽羅地圖》(李源祚)	靈谷	千佛峯
《耽羅錄》(李源祚, 1841년 경)	靈室 瀛室	
《耽羅誌》(張寅植, 1850)	靈室 瀛室	五百將軍 修行洞
《大同地志》(金正浩, 1863)	瀛室	
<漢拏山記>(崔益鉉, 1875)	瀛室	千佛峯 五百將軍
《梅溪先生文集》(李漢震)	瀛室	
《耽羅誌》(南萬里, 1902)	靈室	



그렇다면 ‘영실’의 바른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실’은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적되, 한자로 표현하려면 ‘靈谷’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영실’은 순우리말의 한라산 골짜기로서, {영}과 {실}로 분석 가능한 데다 이때의 {실}이 계곡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는 판단에서다. 崔世珍의 《訓蒙字會》(1527)와 《千字文》(光州本, 1575)·《石峰千字文》(1583)에는 ‘골 곡谷’으로 되어 있으나 이른 시기 문헌에서는 ‘실 곡谷’이었음이 확인된다.

《三國遺事》권2 <孝昭王代 竹旨郎>에,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烏一云谷級干…問閭人 得烏失奚在’라 하여 ‘得烏谷’과 ‘得烏失’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谷’과 ‘失’은 같은데, ‘谷’은 ‘실 곡’으로 訓讀한 것이고 ‘失’은 音讀의 결과일 뿐이다. 또 《三國遺事》권3 <皇龍寺丈六> ‘絲浦’ 夾註에 ‘今蔚州谷浦也’라 하여 ‘谷浦’의 ‘谷’을 訓讀하여 ‘실(絲)’로 읽고 있다.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를 뜻하는 어휘 ‘시내’는 바로 ‘{실[谷]}+{내[川]}>시내[谷]>시내’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는데, 문제의 ‘谷’(골짜기)을 뜻하는 순수 어휘가 바로 ‘실’임을 알 수 있다. 이은상의 《耽羅紀行》에서도 ‘『령실』이라는 『실』은 『洞谷』의 朝鮮語요, 『室』은 漢字의 音譯인 듯하다⁴⁴⁾고 풀이해 놓아 ‘영실’이 순우리말 계곡 이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실’은 순우리말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바꿔 쓰면서 ‘靈谷·瀛室·瀛谷·靈室’ 등으로 혼용되었다. 때문에 한자 표기는 이른 시기에 썼던 ‘靈谷’을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영실’을 한자의 뜻을 빌려 ‘신령이 사는 곳’이라거나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던 靈山의 모습이라고 하여 靈室이라고 불려졌다⁴⁵⁾는 것은 분명 잘못된 풀이이다.

1.3. 天池淵

‘천지연’은 ‘天池淵’과 ‘天地淵’으로 한자표기가 들쭉날쭉하다. 옛 문헌은 물론, 오늘날에도 쓰는 사람에 따라 위의 두 가지 한자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서 발간한 《濟州道傳說誌》와 《濟州道誌》만 보더라도 ‘天池淵’과 ‘天地淵’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13개 洞 가운데 하나인 ‘天地洞’이 ‘천지연’과 ‘천지연폭포’를 끼고 있다는 데서 왔다는 유래만 봐도 ‘천지동’의 洞名과 ‘천지연’의 漢字는 같아야 한다. 천지연은 못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 제163호(담팔수 자생지)와 제182-8호(천지연 난대림 지대)로 지정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그 이름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천지연’이란 기록은 《南溟小乘》에 보이는 ‘天地潭’이 시초다.

二十五日大風微霰蓐食而行取海邊小路往尋天地潭乃舍馬攀崖而下潭周數百步深不可測雙瀑飛落長可百丈聲若雷霆潭左右松栢爛開如紅雲兩崖作玉屏到海五里而斷…策馬入海畔細路往天帝潭俯見一水澄泓大如天池三面巖石簇立皆成八面洞府幽邃到海可五六里…⁴⁶⁾
(밑줄 필자)

44) 李殷相, 《耽羅紀行》,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P.209.

45) 제주도, 《濟州道誌》(제2권), <瀛洲十二景> 중 ‘靈室奇岩’, 1993, p.1005.

46) 林悌, 《南溟小乘》 11월 25일 기사 중.

위의 기사를 보면 천지연과 천지연폭포에 대한 묘사가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25일의 기록에도 ‘天地’와 ‘天池’를 혼용함으로써 한자 표기의 혼란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南溟小乘》보다 20여 년 뒤에 나온 《南槎錄》에서는 ‘天池瀑布’와 ‘天池潭’⁴⁷⁾으로 기록하고 있다. 《南槎錄》은 ‘천지연’을 소개하면서 ‘地誌에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자못 안타까워했다(地誌亦闕而不載)’.

《耽羅志》旌義縣 山川條 ‘天池淵’ 夾註에는 ‘天池淵在西歸浦上’이라고 해서 ‘天池淵’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인 李元鎮은 천지연에 대한 칠언절구도 남겼다⁴⁸⁾. 《南槎日錄》에는 《南溟小乘》과 《南槎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南溟小乘》에 ‘天地’로 쓰인 부분을 ‘天池’로 고쳐 쓰기도 했다. 李增은 ‘天帝淵’을 ‘天池淵’이라고 기록했다.⁴⁹⁾

《知瀛錄》에도 ‘天地淵’⁵⁰⁾과 ‘天池淵’⁵¹⁾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저자 李益泰는 ‘天帝淵’을 ‘天池淵’⁵²⁾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耽羅十景’을 선정하고 그 10경을 청룡면수모형화로 한 개의 자그만 병풍을 만들고 그 윗면에 사적을 서술, 보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그가 선정한 10경은 ‘朝天館 別防所 城山 西歸所 白鹿潭 瀛谷 天池淵 山房 明月所 翠屏潭’ 등인데, 이때의 ‘天池淵’은 ‘대정 경계 동쪽으로 30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天帝淵’을 가리키는 것이다.

《耽羅地圖并序》와 《耽羅地圖并識》⁵³⁾, 《大同地志》⁵⁴⁾에는 ‘天池淵’으로 기술되

47) 10월 16일 기사 중. 十六庚辰晴夜月明宿大靜縣客舍食後發行歷毛瑟浦查點戰船什物仍見天池瀑布按天池潭在西歸浦西五里許自海口左右石壁屏擁逶迤窈窕洞中樹木皆冬青…

48) 千疊蒼屏插紫冥 白虹雙飲碧泓澄 大鵬何日同風起 一舉扶搖九萬層

49) 2월 21일 기사 중. 余到天池淵觀之瀑長半不及朴淵清麗奇壯亦不及朴淵而幽邃險怪則過之距天池淵西三十里大靜地盛瀑川下流亦名以天池淵者有之形勢酷似天池淵而洞壑瀑長差少於旌義所在小乘云天帝潭俯見一水澄泓大如天池三面岩石簇立皆成八面洞府幽邃到海可五六里未知此是大靜天池耶耽羅志亦不載未可知也

50) 9월 13일 기사 중. 西歸所城臨海邊正當要害處正方天地兩淵瀑布在其左右數馬場之內奇勝可觀

51) …城東一里蒼碧削立浦口奇巖星羅左右中開石門大川直流飛落十丈恍若珠散玉碎瀦爲深湫與海通波蒼松數十株列立成行城西一里有天池淵石崖屏擁幽邃雄渾…(‘耽羅十景’ 중 ‘西歸所’ 일부)

52) 9월 14일 기사 중. 十四日早登天池淵壘頭觀瀑觀德…又行二十里有淵亦名天池淵

53) 《耽羅地圖并序》와 《耽羅地圖并識》의 ‘天池淵’ 내용은 똑같다. 天池淵在西歸鎮三四里許有大溪分爲雙瀑飛落絕間長可五六丈流下三四里珠散玉碎子午不息爲西歸浦此浦卽耽羅朝元時候風處也形勝大類天帝潭幽詭不及而豁爽過之

54) 卷12 旌義縣 山水條 天池淵 夾註에 ‘西歸浦西五里有千層蒼壁上有瀑’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어 있다. 南萬里의 《耽羅誌》 旌義縣 形勝과 山川條에도 ‘天池淵’이 소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천지연’은 못 이름이니 ‘天地’보다는 ‘天池’로 쓰는 것이 온당하다. ‘천지동’이 천지연과 천지연폭포에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보면 동 이름도 ‘땅 지(地)’ 보다는 ‘못 지(池)’를 쓰는 것이 옳다. 따라서 ‘천지연’의 한자 이름은 ‘天池淵’으로 쓰는 한편, 洞名도 ‘天池洞’으로 고쳐야 마땅하다.

1.4. 선흘곶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선흘곶’은 넓은 상록 활엽수의 천연림으로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1971년 8월 26일자로 제주도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천연자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곳도,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불렀던 ‘선흘곶’ 대신 ‘동백동산’이라는 학술용어로 대체하면서 본래 이름이 우리 뇌리에서 지워지고 있다.

‘선흘곶’은 원래 동백나무가 많다 하여 ‘동백동산’이란 명칭이 붙여졌으나 실상은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비쭈기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성 樹種이고, 숲 속에는 새우난초, 보춘화, 사철란 등이 자라고 있다.⁵⁵⁾ 상록 활엽수림으로 우리나라 단일 지구로는 가장 넓은 면적이며 희귀식물인 백서향과 변산일엽의 군락지로서 종조성이 풍부⁵⁶⁾ 곳이기 때문에 동백나무에만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도 ‘동백동산’이라 부르지 않고, 대대로 이어온 ‘선흘곶’을 선호한다.

‘선흘곶’은 <석살림곶>과 <불도맞이곶>에 등장하는 한편,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 등 민요 속에도 녹아 있는 정겨운 이름이다. <이여도> 전설⁵⁷⁾에도 ‘선흘고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가와 민요·전설에 등장하는 ‘선흘곶’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지명으로, ‘선을곶·서늘곶·서늘곶’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무가에 나타나는 ‘선흘곶’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월 남산(南山) 먹자골에서 허정승(許政丞) 아들 일곱성제 솟아나니, 큰아들(長男)은 백두산(白頭山)을 차지하고, 셋아들(次男)은 태백산(太白山)을 차지하고, ... 일곱째 아들 제주 한로산(漢擎山)을 차지하고, 정원(旌義) 가민 영감선왕(令監船王)으로

55) 濟州道, 《濟州道誌》(제3권), 1993, p.1477.

56) 제주발전연구원, 《선흘동백동산,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1998, p.1.

57) 濟州道, 《濟州道傳說誌》, 1985, p.67 참조.

놀이, 대정(大靜) 가민 도령선왕(道令船王)으로 놀고 꿩뭇꽃(爲美藪) 각시 선양으로
놀이 선을곳(善屹藪) 황세앗 돌허리아기씨선양으로 놀고,⁵⁸⁾

불(火)을 부찌 조카? 경 아니하여도 본주지관(本主祭官) 가슴엔 불이 부떠오는다
불을 부찌민 더구나 죄(罪)가 질 듯하니, 대정(大靜) 심방(神房)은 심모람작대기로
하곡 주(州)의 모관(牧內) 심방은 선을곳(善屹藪) 들어강 들굽냥 작대기 타당 동서
(東西)레레 치와맞자.⁵⁹⁾

다음은 ‘선흘곳’이 들어 있는 민요이다.

모관 이방 영리방 각시 무싱것이 상덕이라니 서늘곳되 도아냥 마께 손에 켈이가
상덕이라라⁶⁰⁾

서늘곳되 낭 지레 가난 짐패 졸란 못 지엄서라⁶¹⁾

요네 상착 부러지라 고지 낭과 옛일 말가 서늘곳 서냥은 애기씨 서냥 꿩뭇꽃 서냥
은 영감의 서냥⁶²⁾

요네작이 불어진들 서늘곳에 남업시라 늙은이랑 남고지가건 젊은이랑 남마짐가게
(お前の櫓が 折れよとも ソヌルの森に 木がなかる 年寄達は 木を伐りに 子供達は 木
を負ひに)⁶³⁾

대정곳에 영감님선왕 旌義곳에 도령님선왕 서늘곳에 아기씨선왕(大靜林では 令監
様船王 旌義林では 道令様船王 善屹林では 處女様船王)⁶⁴⁾

나아가 ‘선흘곳’은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어휘이다. ‘善屹’은 ‘臥屹·大屹·南屹’
등과 함께 고대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다. 또 ‘수풀’을 나타내는 ‘곳(고지)’도 중
세어 모습을 지닌 어휘이다.

玄平孝는 특히 ‘屹’에 대하여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屹’은 三國의 지
명 어휘 중에서 집단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城邑, 邑·村’과 대응된다고 밝히고, 고
구려어에서는 ‘忽’자로 표기되어 ‘城邑’을, 신라어에서는 ‘火(伐)’자로 표기되어 ‘邑·村’
을, 백제어에서는 ‘夫里’자로 표기되어 역시 ‘邑·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제주 지명의 ‘屹’은 삼국의 지명 표기 중 고구려의 ‘忽’과 근사한데 ‘忽’과 ‘屹’은

58) 玄容駿(1980), 앞의 책, <석살림> ‘선양참봉본풀이’ 중, p.93 참조.

59) 앞의 책, <불도맞이> ‘작대기로 치우기’ 중, p.117.

60) 金榮敦(1965), 앞의 책, <맷돌·방아 노래> 중 76번 민요, p.23.

61) 앞의 책, <맷돌·방아 노래> 중 82번 민요, p.24.

62) 앞의 책, <해녀노래> 중 881번 민요, p.230.

63) 高橋 亨, 《濟州島の民謡》, 寶蓮閣, 1979, <海女謡> 5번 민요 중, p.157.

64) 앞의 책, <船謡> 중에서 7번 민요, p.178.

의미 내용은 크게 달라졌지만 한자 차용 방법이 같고 음상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忽’과 ‘屹’은 동일한 계열로써 夫餘語系⁶⁵⁾임을 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재 지명과 학술 용어로 쓰이는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은 ‘선흘곶’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원화한 용어 체계를 통일시키는 단순한 작업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제주 문화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역사·문화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2. 人 名

인명은 사람 개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얼굴 모습과 音色이 다 다르듯, 그 이름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별성·고유성·유일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역사 인물인 경우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다. 즉 音이 여럿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部首를 착각한다든가, 音을 나타내는 부분을 독립된 글자의 음으로 당연시하여 그것을 좇아 읽음으로써 본래의 이름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련의 오류들은 인명이 지니는 개별성·고유성·유일성이라는 특성에 위배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崔溥·徐隣·李繪·愼哉祐’이다.

2.1. 崔 溥

崔溥는 ‘최부’와 ‘최보’ 두 가지로 불리어 혼란을 주는 이름이다.

‘崔溥’는 1487년 9월 제주추쇄경차관으로 임명되어 그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폭풍을 만나 망망대해에서 두 달 남짓 표류하다 중국의 곳곳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표해록》을 저술해 임금에게 바쳤다. 崔溥는 3개월 남짓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의 풍물과 역사 등을 소재로 한 <耽羅詩> ‘35절’을 남기는 등 제주학 연구를 위해 비껴갈 수 없는 인물이다.

65) 玄平孝, <地名을 통해서 본 耽羅言語의 源流>, 《濟友文化》(4호),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총학생회, 1990, p.41~42.

崔溥에 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인다. 《南槎錄》과 《耽羅志》에는崔溥가 <耽羅詩>를 쓴 배경과 시 '35절'이 소개되었고, 《耽羅志》 濟州牧 官員條66)와 張寅植의 《耽羅誌》, 金錫翼의 《耽羅紀年》 등에도 그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崔基泓 譯 《漂海錄》, 최기홍 옮김 《최부표해록》, 윤치부 註解 《표히록》 등 시중에 나와 있는 표해록에는 저자가 모두 '최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권)에는 《錦南漂海錄》의 저자를 '최보'로 번역해 소개했다. 《역주 탐라지》와 金榮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등도 '최보'로 기술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崔溥'는 '최부'로 읽어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錦南漂海錄》을 언해한 국역본인 《표히록》 서두가 “상인신최부 제취서 표류하야”로 시작해 '최부'를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최부의 방손인 崔秉一 등이 주축이 되어 이뤄진 '최부표류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67)와 '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68) 모두 '최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와 관련된 표해록을 한데 모아 출간한 《옛 제주인의 표해록》에서 역자 김봉옥·김지홍도 '최부'로 읽고 있다. 이들은 주에서 “이 글자는 박성원 외(1747)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상성 '夔'에 보면 중성을 '오'로 읽는 것은 속음(俗音)이라고 하였고, '우, 유'로 읽는 것이 바른 음(正音)이라고 하였으며, 26a면에 '溥'를 '크다'로 주석을 내고 '부'로 읽고 있다. 원저자의 이름을 '최보'로 읽는 것은 중용에 있는 구절(제 31장) '溥溥淵泉而時出之'(두루 넓게 하고 깊이 뿌리 있게 하여 때 맞춰 이를 드러나게 한다)로부터 이 이름을 지은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선조 때 언해본에 '보'로 쓰여 있음), 이溥의 음을 '甫'로 보고서 읽었던 속음임을 알 수 있다”69)며 '최보'로 읽는 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못 박고 있다. 결국 《錦南漂海錄》의 저자는 '최부'로

66) 崔溥小序審藥曹今孫檢律…

67) 최부표류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는 2002년 7월 최부가 중국에 표류해 거쳐 간 중국 寧海縣 越溪村의 희망초등학교에 '崔溥漂流事迹碑'를 세웠다.

68) 2003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는 최부표류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가 해체되어 발족되었다. 이 사업회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최부표해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념비 주변 환경 조성, 표해록 탐사 방문 등의 사업을 벌인다.

69) 김봉옥·김지홍 뒤집, <최부의 (중국) 표해록>,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p.19. 주 31) 재인용.

읽어야 맞다.

2.2. 徐 麟

김녕굴 전설에 등장하는 ‘徐麟’ 판관도 ‘徐麟’으로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麟’의 ‘丩’ 변을 ‘火’ 변으로 誤認하거나 ‘련’을 ‘린’으로 誤讀한 결과이다.

김녕굴 전설은 《耽羅誌草本》 《耽羅紀年》 《增補耽羅誌》 등에 실려 있으며, 구비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또 주민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이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헌에 기록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寧窟古有一大蟒作妖土人每於歲初具酒食祭之供一處女以代牲否則盲風怪雨終歲不止徐麟爲判官年少有膽力吏以故事白徐曰豈忍以妖物而殺無辜乎擇軍校數十人持鎗刀備薪炭焰硝等物依前設祭大蟒出頭將噉處女徐手鎗從高刺下令諸校亂擲曳出熾火燒之腥穢不可近卽單騎馳入城見背後一道赤氣直趕來幾及之到衙後昏倒不省竟卒于官自此蛇妖遂絕⁷⁰⁾

乙亥十年明正德十年春三月判官徐麟殺妖蛇于金寧窟先是有一妖蟒大如五石缸常居窟中作妖興凶土人每於歲初一云春秋具酒食祭之供一處女年滿十五者以代牲否則盲風怪雨終歲不止徐麟年少有膽力吏以故事白徐曰豈忍以妖物殺無辜乎擇軍校數十人持鎗刀備薪炭焰硝依前設祭大蟒果出頭將噉處女徐手鎗從高刺下令諸校亂擲曳出置火燒之腥穢不可近自此蛇妖遂絕舊說徐麟⁷¹⁾卽單騎馳入城見背後一道赤氣直趕來幾及之到衙昏倒不省十餘日竟卒于官時年十九歲云⁷²⁾

判官 徐麟 中宗八年 癸酉 二月에 到任하고 越二年 乙亥四月 十日에 卒하다. 舊左面 金寧窟 大蟒을 射殺하야 民害를 除去하다. 向說에 公이 大蟒를 射殺하고 軍騎로 州城에 馳入할 새 背後에 一点赤氣가 趕來하야 幾及이라 到衙에 昏倒하야 十餘日만에 卒하니 是年이 十九歲云⁷³⁾

세 문헌 모두 ‘徐麟’으로 쓰고 있는데, 이 ‘徐麟’을 ‘徐麟’으로 誤記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김녕리의 김녕사굴(蛇窟)은 사신퇴치의 전설로 유명하다. 그것은 매년 초의 제사에 굴 속의 큰 뱀신에게 처녀를 희생으로 바쳐서 중종 10년(1515)에 판관 서린(徐麟)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사살하고 불질러버린 후에 근절됐다는

70)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3 ‘奇聞’ 참조.

71) ‘舊說徐麟…’ 이하는 夾註로, 이 夾註의 ‘徐麟’은 ‘徐麟’의 誤記 같다.

72) 金錫翼, 《耽羅紀年》 卷2.

73) 淡水契, 《增補耽羅誌》 ‘觀風案’ 참조.

것이다. 그러나 서린은 제주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 뒤에서 붉은 기운을 느끼고 도착하자 넘어지고 수일 후에 죽으니 때에 나이 19세였다고 《增補耽羅誌》에는 기록되어 있다”⁷⁴⁾는 식이다.

김녕굴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인 북제주군의 홈페이지(www.bukjeju.go.kr) 구좌읍 관광안내에도 ‘서린’과 ‘서련’으로 혼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 ‘서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글 표기는 ‘서련’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녕굴은 사신평치 전설로 유명할 뿐 아니라 萬丈窟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천연용암동굴로, 인문 자연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이다. 더욱이 김녕굴 전설은 조선 중종 10년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했던 徐憐 판관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2.3. 李 禴

사람 이름은 한자 부수에 따라 한순간에 착오를 일으키는 수가 많다. 효종 9(1658)년 4월부터 현종 1(1660)년 5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李禴가 바로 그 경우인데 ‘이괴’와 ‘이회’로 읽히고 있다. ‘禴’과 ‘禴’는 部首가 ‘耑’(보일 시)나 ‘耑’(웃 의)나 에 따라 음이 ‘회’와 ‘괴’로 다르다.

李禴는 목사 재임 때 藏修堂을 지어 제주의 학문을 일으켰고, 후임 목사에 의해 사당에 배향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 자료에는 그의 이름 ‘禴’ 字의 部首 자리에 ‘耑’ 대신 ‘耑’가 쓰임으로써 ‘禴’로 변환 경우가 많다. 譯書나 인용 자료 상당수는 아직도 ‘李禴’보다는 ‘李禴’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주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문헌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목사 부임 연대와 장수당 설립 연대, 사당에 배향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李禴’가 등재된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李禴보다 20년 뒤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增은 문집 《南槎日錄》에서 “侯名禴字方歷敷三司賜俳牧民者類皆劇必有聞”이라고 추어올리며 ‘禴’ 자리에 ‘耑’를 부수로 하는 ‘禴’를 썼다. 그보다 16년 뒤에 나온 《知瀛錄》은 이름과 더불어 李禴 목사의 藏修堂記를 상재해 그가 어떻게 학문을 일으켰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74)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pp.142~143.

① 藏修堂在書院前古高判尹得宗之遺基也戊戌年牧使李禴別講學舍十餘間名曰藏修堂⁷⁵⁾

② 藏修堂記 越在戊戌春濟州牧缺孝宗大王深念海外蒼生不被朝廷惠澤命大臣文官中擇薦大臣以臣禴應命余以同年四月到州上訖以爲欲宣聖化莫如興學首集三邑校生考講則自手畊農之暇能讀四書小學多通音釋擇其中讀聲清朗氣質明秀者二十人官給書糧構草屋六間於鄉校傍使之居接又差曾讀經書者爲訓長以教之余亦於每月朔望親與講論賞罰其能否則人皆自奮兀兀窮年非有大疫病故不敢退歸其家…余將瓜金晉鎔詣余言曰使道下車以來招集諸生勤課不怠諸生亦從化勤學文學丕變蒙德大矣然若但如此而矣歸則諸生更無依歸之所學將矣其學而歸之農豈非可惜之甚乎余曰奈何晉鎔曰城南有一廢基乃故判尹高得宗之舊址也高判尹之兩子皆登文科顯于朝素稱爲名基若於此構數棟屋以爲藏修之所措置如干書糧則可爲永世不朽之盛事云遂與晉鎔往觀之則漢挈正脉逶迤北走磅礴而成一丘前臨大海左右懷抱名基之稱果不虛矣於是召直鳩材築學舍十一間揭名曰藏修之堂…其事畧記創始本末云庚子四月日牧使李禴記⁷⁶⁾

《知瀛錄》의 위 두 자료를 보면, 이름이 ‘ㄸ’ 대신 ‘ㄸ’ 변에 ‘會’ 字로 등재되어 ‘禴’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⁷⁷⁾ 그런가 하면 같은 책에도 ‘藏修堂’ 건립 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①의 기록은 ‘古高判尹得宗之遺基也戊戌年牧使李禴別講學舍十餘間曰藏修堂’이라 해서 예전에 판운을 지낸 고득종의 옛터에 戊戌(1658)년에 별도로 학사 10여 칸을 짓고 강의했는데 이름하여 장수당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만, ②에는 임기가 끝날 즈음해서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득종의 옛터에 학사 11칸을 지어 장수당이라 하고, 庚子(1660)년에 창시 본말을 간략하게 쓴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위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장수당 창건 연대는 ②의 기록에 보이는 1660년이 맞고, ①의 무술년에 창건했다는 기록은 목사 부임 연대를 장수당 창건 연대로 착각해 쓴 것으로 판단된다.

李禴와 관련한 자료는 《濟州邑誌》(濟州)⁷⁸⁾와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⁷⁹⁾에도 실려 있다. 위 두 읍지를 보면 李禴가 橋林書院 別祠(鄉賢祠)에 平靖公李約東과 함

75) 李益泰 《知瀛錄》에 수록된 藏修堂에 관한 기록.

76) 《知瀛錄》에 수록된 藏修堂記 중. 이름 ‘會’는 ‘보일 시’(ㄸ) 변으로 필사되어 있어 보기에 따라 ‘회’로 읽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77) 李益泰 《知瀛錄》(1997, 제주문화원)과 李增의 《南槎日錄》(2001, 제주문화원)을 원문과 함께 번역해 제주에 소개한 金益洙는 ‘이괴’로 읽고 있다.

78) 鄉賢祠 夾註 ‘平靖李約東晚晤李禴康熙己酉立祀院生六十六人居接生二十人書員十九名直軍十二名奴四名婢六名’이란 기록에 ‘李禴’란 이름이 보인다.

79) 書院條 鄉賢祠 夾註 ‘平靖公李約東晚晤李禴爲牧使時以化民興學顯宗十年己酉立祠同在橋林書院故守直生則無別置者’에 ‘李禴’가 사당에 배향된 이유가 적혀 있다.

께 1669(현종 10)년에 배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름은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不’ 변에 ‘會’자로 올라 있다. 張寅植의 《耽羅誌》와 《耽羅誌草本》에도 ‘不’ 변에 ‘會’자로 적고 있으나 《耽羅紀年》에는 정확히 ‘李繪’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李繪’로 잘못 등재해 번역본을 인용한 자료들은 ‘繪’로 적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위 두 문헌도 藏修堂 설립 연대와 祠堂에 追享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耽羅誌草本》 學校條에는 李繪의 藏修堂記 등을 수록해 藏修堂 건립과 사당에 배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당에 배향한 내용에서는 ‘象賢祠… 晚晤李繪顯廟己酉立祠’⁸⁰⁾라고 적어 己酉年(1669)에 마치 象賢祠가 지어진 것처럼 기록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耽羅紀年》에는 藏修堂 설립 연대가 1659(효종 10)년으로 잘못 등재되었는가 하면 사당 이름도 ‘永惠祠’로 올라 있다.⁸¹⁾

그런데 李繪가 사당에 배향되는 시기는 1669(현종 10)년으로 사당 이름은 ‘別祠’, 즉 ‘鄉賢祠’다. 이후 ‘鄉賢祠’가 ‘象賢祠’, ‘永惠祠’로 바뀌었지만 위의 문헌 자료를 보면 사당 창건 연대가 모두 己酉(1669)年으로 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⁸²⁾ 이밖에 《國朝文科榜目》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8권)에는 ‘李繪’로 올라 있고, 《增補文獻備考》 제212권 學校考에는 ‘李繪’로 잘못 등재되어 혼란을 부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최근 후손의 요구에 의해 ‘디지털한국학’(http://www.koreandb.net/)에 등재된 ‘李繪’를 ‘李괴’('괴'를 한글로 쓰고 있음)로 정정했다. 반면 金榮洽 編著 《濟州人名事典》에서는 “연안 이씨 족보에는 이괴(李繪)로 쓰고 있으나 종래의 모든 사전에는 이회(李繪)로 쓰고 있어 혼돈을

80) 象賢祠在橋林書院傍平靖公李約東晚晤李繪顯廟己酉立祠瓶窩李衡祥蘆峯金正純廟己酉追享參奉金晉瑑辛卯追享… 金晉瑑은 金晉鎔의 誤記다.

81) 己亥十年…牧使李繪建藏修堂於南城內初李繪勸獎三邑土子邀進士金晉鎔爲之師至是因金晉鎔議遂建學堂於南城內高得宗舊基扁藏修仍以興學事建請得耗穀三百斛又割官儲數百石設齋生廩料… 己酉十年清康熙八年建永惠祠于藏修堂東享李約東李繪…

82) 李繪 목사는 처음 1669(현종 10)년에 李연 목사가 창건한 別祠, 즉 鄉賢祠에 李約東 목사와 함께 배향되었다. 1819(기묘·순조 19)년 조의진 목사가 유장에 따라 李衡祥, 金정을 중향하였으며, 1831(신묘·순조 31)년에는 李禮延 목사가 유장(儒狀)에 의하여 金晉鎔을 추향하였다. 처음에는 ‘鄉賢’이라 揭額하였으나 1841(현종 7)년에 李源祚 목사가 州牧을 지낸 사람은 ‘鄉賢’이라 칭할 수 없다 하여 ‘象賢’이라 개명하였고, 1848(현종 14)년에는 張寅植 목사가 다시 ‘永惠’라 고쳐 金正喜가 題額하였다. 뒤에 李禮延·林亨秀를 추향하였는데, 1871(고종 8)년에 褻절되었다. 따라서 같은 사당이긴 하지만 ‘鄉賢’, ‘象賢’, ‘永惠’祠를 같은 연대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해서는 곤란하다.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市의 옛터》, 1996, pp.256~257 참조.

피하기 위해 종전대로 쓰기로 한다”⁸³⁾고 적어 대조적이다. 원본 확인 없이 번역 자료나 기존의 잘못된 자료를 무작정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를 빚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延安李氏家乘》을 보면, 李禕의 형제들의 향렬이 모두 ‘衤’변의 ‘禕·衤·禕’등 이어서 ‘禕’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延安李氏家乘》에 수록된 이름의 부수들은 ‘衤’가 ‘衤’처럼 보이는데 ‘李禕’ 이름이 ‘李禕’로 변환 것도 필사하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衤’를 ‘衤’ 변으로 잘못 읽어서 생긴 결과인 것 같다.

2.4. 慎裁祐

‘신재우’는 조선 고종 때 제주관관과 대정현감, 대정군수 등을 두루 역임한 제주 출신 관리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소재 ‘節婦岩’을 명명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이 ‘신재우’에 대한 기술 내용이 가지각색인데다 한자 이름도 ‘慎裁祐·慎裁祐·慎裁祐·慎哉佑·慎載佑·慎裁佑’ 등으로 들쭉날쭉이다.

‘신재우’에 대한 한자 이름은 《高宗實錄》 1864(고종 1)년 5월 14일 기사에 ‘持平 慎裁祐疏略今我聖上一元之初新設慶科多士就如雲’이란 기록에서 확인된다. 위의 기록을 보면 ‘신재우’의 한자 이름이 ‘慎裁祐’로 표기되어 있다. <業武康士喆妻高氏表節碑>⁸⁴⁾와 <節婦高氏設置香火勸善錄>⁸⁵⁾, <節婦高氏第二次設置香火勸善錄>⁸⁶⁾, <續陰晴史>⁸⁷⁾에도 慎裁祐가 실려있다. 또 《國朝文科榜目》에는 ‘慎裁佑’⁸⁸⁾, 《續修三綱錄》⁸⁹⁾에는 ‘慎裁祐’로 표기되어 있다. 《新字典》을 보면 ‘裁’와 ‘裁’는 같은 字라고

83) 金榮洽, 앞의 책, p.592.

84) 1867년 5월 제주관관 慎裁祐가 짓고 役事擔當 金應河가 글씨를 쓴 ‘업무 강사철의 아내 고씨의 절개를 기리는 비문’으로, ‘절부암’이라는 비문은 고종 4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85) 1898년 대정군수로 다시 부임한 慎裁祐가 ‘고산·용수리민에게 절부 고씨의 제사를 권하는 글’이다. 이 권선문을 보면 신재우가 제주관관 시절에 묘에 비를 세워 ‘절부비’라 이름하였고 대정군수로 재임하자 1898(광무 2)년 6월에 절부 고씨에게 제사를 베풀고 (제사를) 권선했음을 알 수 있다.

86) 1947년 3월 李璿晷가 제2차로 절부 고씨의 제사를 베풀고 권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절부암제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다.

87) 1898년 4월 2일 기사에 ‘新任大靜朝天慎裁祐與本郡守同舟而來’란 내용이 실려 있다.

88) 절부암 비석 맞은 편에도 ‘慎裁佑’라는 이름이 보인다. 절부암 비석에는 ‘監董 金膺河書 洞首李八根 刻’, 뒷면에는 ‘同治 丁卯 年記 字平三’, 그 맞은 편 암벽에 ‘判官 慎裁佑撰’이라 음각되어 있어, 同治 丁卯年, 즉 1867(고종 4)년에 신재우 관관이 節婦岩이란 세 글자를 撰하여 李八根에게 새기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되어 있고, ‘祐’와 ‘佑’는 통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앞선 문헌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栽’ 보다는 ‘栽’, ‘佑’ 보다는 ‘祐’로 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耽羅紀年》과 南萬里의 《耽羅誌》에는 ‘愼栽祐’로 올라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인 《高宗實錄》과 《國朝文科榜目》에 ‘愼栽祐·愼栽佑’로 올라 있어 ‘신재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우’는 번역과 編譯, 인용 과정에서 ‘愼栽祐⁹⁰⁾·愼栽佑·愼載佑·愼哉祐’ 등으로 둔갑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예로 시중에 있는 절부암 기록을 보면, ‘신재우’의 한자 이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있다.

- ① (節婦岩은: 필자) 열부(烈婦) 고씨(高氏)의 절개(節概)를 기리기 위한 곳이다. 조선말기 여기에 사는 어부 강사철(康士喆)이 죽세공품(竹細工品)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베어 돌아오다 거센 풍랑을 만나 실종되었다. 그의 아내 고씨는 며칠동안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새 옷을 갈아입고 이곳 나무에 목매어 자살하자 남편의 시체가 바위 밑에 떠올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1867년(고종 4) 판관(判官) 신재우(愼栽佑)가 이를 신통하게 여겨 조정에 알리고, 이곳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겨 후대에 기리게 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3월 15일(음)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⁹¹⁾
- ② 節婦岩은 烈婦 濟州高氏의 節概(節概의 잘못: 필자)를 후세에 기리기 위한 곳이다. 朝鮮朝末 遮歸村 出生의 高氏는 19세에 同里 康士喆에게 出嫁하여 단란하게 지냈다. 하루는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심한 風浪을 만나 불행하게도 변을 당하고 말았다. 婦人 高氏는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식음을 잊고 시체나마 찾으려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海岸을 배회하였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음으로 남편의 뒤를 따르는 것이 道理라 생각하여 素服으로 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속칭 언덕동산 숲에서 목매어 자결하고 말았다. 이 애절한 烈婦의 뜻을 굽어 살피었는지 다음 날에는 남편의 死體가 高氏가 목맨 장소에 漂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곧 官衙에 알려지자 1852年(高宗 3年) 大靜 縣監 愼栽祐는 高氏가 목맨 곳의 岩石에 節婦岩이라 刻을 하고 두 시체를 官費로 合葬하여 장례를 치르고, 祭田을 마련하여 每年 祭享費를 마련하여 1년 1회(三月 十五日) 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근간까지도 龍水里民들이 祭禮를 지냈었고 祭田도 현존하여 烈

89) 열녀 고씨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올라 있다. 특히 대정군수 신재우가 고씨의 정절을 가상히 여겨 글을 짓고, 묘에 비를 세웠으며 언덕바위에 절부암이라고 새겼다는 내용이 보인다. 매년 3월 15일이면 묘제를 지낸다는 내용도 있다.

90) 金榮洽 편저, 《濟州史人名事典》, 제주문화원, 2002, p.348. 이 사전에는 표제어가 ‘愼栽祐’로 올라있는 반면, 그에 따른 설명에서는 ‘愼栽祐’란 이름도 보인다.

91)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앞에 있는 돌에 새긴 알립 글.

婦 高氏의 절개와 명복을 받고 있다.⁹²⁾

- ③ 절부암은 열부(烈婦) 제주 고씨(高氏)의 절개를 후세에 기리며 기념하는 바위이다. 조선 말, 차귀촌(遮歸村) 출생의 고씨는 19세 되는 해 같은 마을에 사는 강사철(康士喆)에게 출가하여 단란하게 지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어부 강사철이 차귀도에 대나무를 베러 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일설에는 고기잡이 나갔다가 거센 풍랑으로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처 고씨는 애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식음을 잊고 시체나마 찾으려고 며칠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해안을 배회하였으나 끝내 남편을 찾지 못하자 남편의 뒤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소복을 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속칭 ‘영덕동산’ 숲에서 나무에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자 홀연히 남편의 시체가 이 바위 나무 아래 밑에 표도(漂到)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씨야말로 조아(曹娥)의 포시(抱屍)와 같다.”고 감탄하였다. (中略) 1866년(고종 3) 판관 신재우(愼載祐)는 고씨가 자결한 바위에 절부암(節婦岩)이라 새기게 하고, 관(官)에서 강사철과 고씨 부부를 합장(合葬)하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용수리민으로 하여금 매년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만대에 기리게 하였다.⁹³⁾

위의 세 기록은 모두 제주도에서 만든 ‘절부암’에 대한 알림 글이다. ①은 용수리 절부암 앞에 세워진 것이고, ②는 《濟州道誌》(제3권)에 실린 ‘문화재’ 소개란의 글이다. ③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기념물 ‘절부암’에 대한 알림 글이다.

‘節婦岩’에 얽힌 위의 세 가지 글을 비교해 보면 ①의 글에는 1867(고종 4)년 판관 愼載祐가 고씨의 죽음을 신통하게 여겨 조정에 알리고, 이곳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겨 후대에 기리게 했다, ②에서는 1852(고종 3)년 대정현감 愼載祐가 고씨가 목맨 곳의 암석에 절부암이라 각을 하고 두 시체를 관비로 합장하여 장례를 치르게 했다, ③의 글에서는 1866(고종 3)년 판관 愼載祐가 고씨가 자결한 바위에 節婦岩이라 새기게 했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기록을 비교해 보면, 절부암을 세운 연대가 ‘1867(고종 4)년’, ‘1852(고종 3)년’, ‘1866(고종 3)년’으로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신재우’란 이름도 ‘愼載祐’·‘愼載祐’·‘愼載祐’로 나타나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고종 3년인 ‘1866년’을 ‘1852년’이라 誤記한 것은 원전은 물론 번역본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⁹⁴⁾

92) 濟州道(1993), 앞의 책, 7편 12장 <문화재> 중 지방기념물 제9호 ‘절부암’에 대한 내용. p.1476.

93)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문화재 소개 중.

94) ③의 기록은 제주도교육위원회(1976)가 발간한 《耽羅文獻集》에 수록된 《耽羅紀年》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빚어진 오류다. ‘신재우’에 대한 이름도 번역문에는 ‘愼載祐’, 한문 내용에는 ‘愼載祐’가 올라 있고, ‘고종 3년’의 1852년은 오타로 인해 발생한

여기에서 맞는 한자이름은 ①의 ‘愼裁佑’밖에 없는데 이보다는 국가기록인 《朝鮮王朝實錄》의 ‘愼裁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裁’와 ‘裁’는 같은 글자이고, ‘祐’와 ‘佑’도 서로 통하는 글자이니 그 쓰임도 무방하다. 어쨌든 ‘신재우’는 원본 확인 없이 2, 3차 자료를 인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데, 무분별하게 쓰이는 잘못된 이름과 내용은 하루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口碑傳承

口碑는 口碑心碑가 줄여서 이루어진 어휘로, 비석에 새겨놓은 것처럼 오래도록 전해온 말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기 때문에 口碑는 말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 구비전승은 절실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연을 일정한 형식이나 구조를 갖추어 나타나지만 그 자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전승되면서 가감이 이루어진다.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구비전승은 구비문학을 말하지만, 넓게는 육설·금기어·명명법까지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로 쓴다.

여기에서 논의 대상은 ‘선문대할망·이여도·잠녀·참꽃나무’이다.

3.1 선문대할망

선문대·선문데·선맹디·설문대·설명두·세명뒤·설명지·마고할망·沙曼頭姑·雪慢頭姑…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 제주 창조설화인 ‘선문대할망’ 이야기이다. ‘선문대할망’은 제주도민의 소망과 교훈이 반영된 설화로 굳어진 이야기다.⁹⁵⁾ ‘선문대할망’ 설화는 斷片的이면서도 신화의 전설화 내지 민담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인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있어서인지⁹⁶⁾ 전과

오기다. 고종 3년은 1866년이다.

95) 任東權, <선문대할망 說話考>, 《제주도》(17호), 제주도, 1964, p.113.

96) 許椿,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전규태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백문사, 1993, p.537.

력이 강하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되지만 그 줄기는 하나이다. 그러나 할망 이름은 ‘선문대·선문대·설문대·설명두...’ 등 많은 異稱을 갖고 있다. 술한 이름에 비해 뜻과 어원은 알 수 없어 어떤 이름을 중심에 내세워야 할지 혼란스럽다.

제주 창조설화인 ‘선문대할망’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뿐이다. 신화적 요소가 강한 ‘선문대할망’이지만 ‘山神 곳’⁹⁷⁾에 ‘선맹디할망’이 잠깐 언급될 뿐 여느 본풀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창조신화인 ‘三姓神話’가 《瀛洲誌》, 《東文選》〈星主高氏家傳〉, 《高麗史》〈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南宦博物》 등 술한 옛 문헌에 수록된 것과 달리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수록된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비교적 소상히 소개된 문헌은 1843년 경에 만들어진 《耽羅誌草本》인데 주인공 이름이 ‘沙曼頭姑’와 ‘曼姑’⁹⁸⁾ 두 가지로 나타난다. 1954년 발간된 《增補耽羅誌》에는 ‘雪慢頭姑’·‘曼姑’⁹⁹⁾라 표기되어 한자 표기도 들쭉날쭉하다. 이보다 70년 앞서 나온 張漢喆의 《漂海錄》에는 ‘洗麻姑’와 ‘洗麻仙婆’¹⁰⁰⁾로 나타난다. 崔溥의 ‘耽羅詩’¹⁰¹⁾의 ‘麻姑’와 金尙憲의 詩¹⁰²⁾에 등장하는 ‘麻姑’도 ‘선문대할망’과 연관 있어 보인다.

‘麻姑’는 흔히 우리말로 여신을 존칭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다. ‘마고’는 ‘청태산 마

97) 張壽根, <濟州島如神考>, 《濟州文化》(創刊號), 全國文總濟州支部, 1957, p.37. 구좌읍 평대리 高奉仙 심방(남) 구송. “...예한로 영주산 지물 ㄴ이 당해서 선맹디할망으로 논흐면 그물 ㄴ에 드러사서 육지로 내조 드리노아주마 흐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못흐니 드리 못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98) 卷2 奇聞條 참조. 上古有一神女號曰沙曼頭姑身長幾與天齊手倚漢拏山頂足躡滄海而弄波常自言曰此土人製我一衣則我必連橋於大陸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終不能製其衣橋果不成州東新村有巨人跡印在巖石上至今稱曼姑足跡云

99) 上古에 有一神女하니 号曰 雪慢頭姑라 身長이 與天齊하야 手倚漢拏山頂하고 足躡滄海而弄波하야 常 言曰此土人이 製我一裊則我必連橋於大陸하야 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으로도 終不能製其衣裊하야 橋梁不成이러라 州東新村에 有巨人跡이 印在岩石上하니 至今稱曼姑足跡云이라. p.273

100) 1771년 정월 초 5일 기사 참조. ...或起拜向漢拏而祝曰白鹿忒子活我活我洗麻仙婆活我活我盖耽羅之人諺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又傳遼古之初有洗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古今者所以析活於洗麻白鹿者無所控訴而然也

101) 金尙憲의 《南槎錄》 卷1 참조. 35절 중 33번째 시. 我來得觀神仙宅 採了天台劉阮藥 願學麻姑看海桑 應將此身壺中托

102) 앞의 책 권2 26일 기사 참조. 試拔愁城按酒兵 當杯休起故鄉情 羅紈狎座留人醉 星漢低簷滿意清 官舍橋林秋後色 拏峯笙鶴夜來聲 何緣共着麻姑老 坐見桑田極望平

고할미'라고 전하는 중국 도교의 신선의 이름이 민간에서 관용되어온 것으로 여겨지는데¹⁰³⁾ '마고할망'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문대할망'도 마고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전설 속에서 '선문대할망'은 어떤 이름으로 발화되었을까. 《濟州島傳説》에는 모두 18개의 '선문대할망' 관련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문대'라는 이름이 4회, '설명두' 5회, '설문대' 2회, '마고' 2회, 이칭으로 '세명뒤·췌명티·설명대·설명지할망' 이름이 보인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도 5회나 된다.

《韓國口碑文學大系》9-1(1980), 9-2(1981)에는 각각 1편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설문대할망'으로 기록하였고, 《濟州道傳説誌》에는 8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선문대'가 4회, '설명두' 2회, '설명주' 1회, 異稱으로 '세명뒤'와 '설문대' 각 1회, 이름 없는 것이 1회 보인다. 《濟州說話集成》(1)에는 2개의 이야기가 '설문대할망'으로, 진성기의 《신화와 전설-제주도전설집》에는 3개의 이야기가 '설문대'로 轉寫하고 있다.

도의 출신의 張壽根은 <濟州島女神考>¹⁰⁴⁾에서 14개 유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선문대할망'으로, 任東權은 <선문대할망 說話考>에서 8개 유형의 설화를 모두 '선문대할망'으로 표기해 '선문대'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논문에서는 '선문대'가 주로 쓰이는데, 張壽根·任東權·許椿 등이 '선문대(테)할망'으로, 李成俊이 '설문대할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선문대'와 '설문대'가 엇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추세다. 학계에서는 '선문대할망'을 주로 쓰고 있지만 행정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설문대할망'이 더 익숙하다.

'선문대할망'이 이칭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를 李成俊¹⁰⁵⁾은 시공간적으로 분석했다. 시간적으로는 '선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전설·민담 요소를 다 포괄하고 있는 특이형 설화로서 오래 전에 형성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어 많은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그 이름이 달라졌는

103) 장주근(2000), 앞의 책, p.19.

104) 장주근(1957), 앞의 책, p.38. 장주근은 이 논문에서 '島內 동편에서는 선문대할망, 서부에서는 설문대할망 또는 설물대할망(설문대할망의 오기인 듯: 필자)이라 하는 것 같고, 神房 高奉仙 영감의 노래 錄音에는 선맹대할망이라고 발음되어 있다'고 기록하면서 '선문대할망'을 논문의 부제로 달고 있다.

105) 李成俊, <설문대할망說話研究>, 《國文學報》 10集,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0, pp.57~58.

데 이칭이 많은 ‘고종달설화’와 민요의 ‘맷돌·방아노래’를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그렇다면 異稱이 많은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떠오른 창조설화의 주인공 이름은 어떻게 써야 할까.

張漢喆의 《漂海錄》을 보면, 바다에 표류하던 제주민들이 한라산을 보자 “백록선자(白鹿仙子)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선마선과(洗麻仙婆)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옛날에 洗麻姑가 걸어서 西海를 건너와서 놀았다”는 전설”¹⁰⁶⁾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는 ‘洗麻仙婆’와 ‘洗麻姑’가 ‘선문대’와 연관 있다고 생각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호소하는 제주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영된 ‘洗麻仙婆’와 창조설화의 주인공 ‘선문대’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보면, ‘설문대할망’보다 ‘선문대할망’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무의식이 반영된 일상적 말투에서 ‘맨 처음의 응답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방언학의 이론도 ‘선문대할망’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더불어 ‘설문대할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85년 이전에 장주근(1957), 임동권(1964), 현용준(1976)이 채록한 설화 속에 ‘선문대할망’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학문용어로 ‘선문대’가 널리 쓰이는 점도 ‘선문대’를 고집하는 이유이다.

3.2. 이어도

‘이어도’는 ‘이어도’와 ‘離虛島’라는 異稱을 갖고 있다. 민요와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이어도’는 지난날 도민들의 실정과 소박한 이상을 동시에 뽐뿌그러 집약하는 상상의 섬¹⁰⁷⁾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제주도민의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이어도’의 어원을 명쾌하게 밝힐 수는 없다. ‘이어도’도 ‘이어도’와 ‘이허도’, ‘이코트’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쓰는 사람에 따라 달리 표기되고 있다. 구비전승이라는 성격으로 異稱을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란 명칭은 민요와 설화 속에서 보인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한 일본인 학자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謠》를 보면 ‘이어도(イコト)’와 ‘離虛島’가 보인다. ‘離虛島’는 ‘이코트’로도 표기했다.

江南가건 해님을보라 이어島가 半이라한다 이어말난 마라근가라 마랑가면 남이나
웃나 이어말난 마라근가라 이어하면 나눈물난다.(江南に往くには お日様見て行け 離

106) 張漢喆 著, 鄭炳昱 譯, 《漂海錄》, 汎友社, 1979, pp.76~77 참조.

107)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민속원, 2002, p.467.

虛島が 半道ださうな 離虚といふ言 言はずに行きな 言はずに行たとて 人様笑はふか
離虚といふ言 言はずに行きな 離虚と言はれりや 妾しは泣ける)108)

이허도러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 이허도러라 이허도가면 나눈물난다 이허말은
마라서가라 울며가면 남이나웃나 大路한길 노래로가라(離虚島や 離虚島 離虚や 離虚
や アラ離虚島 離虚島行きや 涙が出ます 離虚といふ言 言はずに行きな 泣いて出て往
きや 人様笑はう 大路一筋 歌で往け)109)

金永三 編 《濟州民謠集》(韓容柱 蒐集)에는 ‘이여도’와 ‘이여도 싸나’ 등으로 표기
되었고, 洪貞杓는 ‘이여도’와 ‘離於島·離虚島’로, 김영돈은 ‘이여도’로 표기해 놓았다.
뒤이어 나온 민요집에도 ‘이여도’와 ‘이여도’가 混淆되어 나타나지만 ‘이여도’가 우세
한 편이다.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 흐민 나눈물 난다 이여 말
랑 마라근 가라110)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흐멘 나눈물 난다 이여말은
마라근 가라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엔 해라111)

점복 한 이여도 메역 한 이여도 점복이영 메역이영 흐여당 우리 아들 공부시키기
여 이여싸나 이여도 가자 이여도112)

이처럼 ‘이여도(이여도)’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흐라’ · ‘~싸나’ 등
에 연결되기도 한다.

‘이여도’를 소재로 한 설화로는 《濟州島の民謠》에 소개된 〈離虚島〉, 진성기의
《신화와 전설》의 〈이여도〉, 玄容駿·金榮敦의 《韓國口碑文學大系》(9-1, 9-3)113)
에 실려 있는 〈이여도〉 설화 2편, 《濟州道傳説誌》의 〈이여도〉114) 등이 있다. 이
들 설화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진성기 채록 ‘이여도’ 전설을 제외하고는

108) 高橋 亨, 앞의 책, <身世歌> 중에서, p.54.

109) 앞의 책, <離虚島>, pp.189~190.

110) 金永三 編(韓容柱 蒐集), 《濟州民謠集》, 서울·중앙문화사, 1958, 민요 <이여도> 중에서,
pp.30~31.

111) 洪貞杓, 《濟州道民謠解說》, 제주문화, 1963/2001, 민요 <이여도 흐라> 중에서, p.107.

112) 金榮敦(1965), 앞의 책, <해녀노래> 중 924면 민요, p.242.

113) 玄容駿·金榮敦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1980)의 ‘이여도’는 북제주군 김녕리에서 조사,
채록한 설화이고, 9-3(1983)에 소개된 ‘이여도’는 서귀포에서 채록한 것이다. 9-1, pp.203~
206. 9-3, pp.232~233 참조.

114) 《韓國口碑文學大系》(9-1)에 소개된 내용과 비슷한데 둘 다 김녕리에서 동일 인물에 의
해 채록된 것이다.

‘이여도’를 쓰고 있다. ‘이여도(離虛島·이어도)’에 대한 유래도 가상의 섬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슬픔을 승화하는 노래의 처음과 끝에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처럼 후렴에서 연유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여도’는 문인들이 관심을 갖는 작품 소재이기도 하다. 김은희의 《이여도를 찾아서》를 보면, 2000년 말 현재 ‘이여도·이어도·파랑도’를 제목으로 한 시 27편, 소설 4편, 수필 1편, 드라마 2편 등 34편이 소개되었는데 ‘이여도’가 6편, ‘이어도’ 24편, ‘파랑도’ 4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시는 ‘이어도’ 19편, ‘이여도’ 4편, ‘파랑도’ 4편이고, 소설은 ‘이여도’ 2편, ‘이어도’ 2편, 수필 ‘離於島’ 1편, 드라마 ‘이어도’ 2편이다. 연도별로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이여도’만 3편 보이고, 1970년대 ‘이어도’ 5편, 1980년대 ‘이여도’ 1편, ‘이어도’ 9편, 1990년대 ‘이여도’ 1편, ‘이어도’ 9편, ‘파랑도’ 1편, 2000년대 ‘이어도’ 1편, ‘파랑도’ 3편 등 최근 들어 ‘이어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여도(이어도)’는 또 상호와 각종 단체, 행사에 제주 이미지를 살리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도 ‘이어도’란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명한 ‘이어도’는 도민들의 이상이 반영된 상상의 섬 ‘이여도’가 아니다. 1900년 봄 일본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던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그 곳이 ‘이여도’가 아닐까 하는 가상적인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여도’는 실제 있었던 섬처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코트라 암초’는 마라도 서남쪽 78마일 해상에 있는 암초를 말한다. ‘이어도’가 확산된 것은 1974년에 나온 이청준의 장편소설 《이어도》 등 ‘이어도’를 표제로 단 문학작품과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소코트라 암초’를 탐사하면서 ‘이어도 탐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 ‘이어도’란 이름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청은 1987년 ‘소코트라 암초’가 있는 곳에 ‘이어도 등부표’를 세웠고, 제주도는 1999년에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이란 이름의 수중 표석을 설치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2003년에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웠는데, 제주도의 건의에 의해서 해도상의 ‘소코트라 암초’도 ‘이어도’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구비전승 자료와 문학작품, 각종 상호 등 이어도(이어도)의 자료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탐색한 김은희는 ‘이여도’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결정적으로 ‘이어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매스컴의 영향과 정부에서 소코트라 암초의 이름을 ‘이어도’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1984년 KBS와 제주대학교에서 파랑

도 탐사를 시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파랑도, 소코트라 암초의 위치는 실제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탐사로 소재가 파악되었고, 이때 KBS에서는 ‘이어도 탐사’라 명명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먼바다에 있는 물 속의 섬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제주도민의 이상향인 이어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¹¹⁵⁾

어쨌든 ‘이어도’는 구비 전승되는 용어로, ‘이어도’와 ‘이어도’를 구분 없이 쓸 것이 아니라 ‘이어도’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 본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나, 제주민이 오래도록 염원했던 이상향을 웅변하는 명칭으로 ‘이어도’ 쓰임이 많은 것을 민요나 설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랑도’와 ‘소코트라 암초’는 ‘이어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용어이다.

3.3. 잠녀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여성을 두고 어떻게 불러야 할까. ‘潛女·潛嫂·海女’가 혼용되어 부르기도 하나, 바닷가 마을에서는 아직도 ‘잠녀·잠네·잠수’라는 용어가 스스럼없이 쓰인다. 이 용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학자들도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논란거리로 남겨 두었다.

물질을 하는 여성에 대한 용어 정립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 예로 제주도교육청이 1995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 교사와 도민들 사이에서 무엇을 표제어로 써야 옳은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논쟁의 골자는, ‘海女’는 일본인들에 의해 생긴 용어여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도 ‘潛女’나 ‘潛嫂’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潛嫂’보다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써온 ‘潛女’를 고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海女’가 일본인에 의해 생긴 용어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토착해간다는 점에서 고수해도 좋다는 견해도 있다¹¹⁶⁾.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이들 용어가 혼재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기관에서는 ‘잠수어업인’¹¹⁷⁾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115)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도서출판 이어도, 2002, p.19.

116) 《제민일보》 1995년 8월 26일자 기사를 참고해 재구성하였다.

117) 2002년 11월 13일 제정된 조례 제2368호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조례>에 의하면 ‘잠수어업인’은 제주도내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또는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지원 사업 등을 위해서는 ‘잠수’란 용어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잠녀·잠네·잠수·潛女·潛嫂·海女’ 중 ‘바다에서 물질하는 여성’을 대표할 용어는 무엇일까.

1,400여 편의 민요를 조사, 채록한 김영돈의 《濟州島民謠研究》(上)에는 ‘잠녀’와 ‘잠수’·‘해녀’가 두루 쓰인다. 그러나 ‘잠녀’의 쓰임새가 많다.

늪은 잠녀 방안엔 도곰 수건이
흐나이곡 질쌘바치 늪은 된 도곰 수건이 아홉이
여¹¹⁸⁾
이기여차 닷 감는 소리 잠녀 간장 다 태운다¹¹⁹⁾
잠녀질을 안 시기커경 요내몸을 들양 가라
고동 생복 내사 실편 잠녀질을 안 시길
눔아 요내몸을 들양 가라¹²⁰⁾
잠수질 흐명도 고향 생각 어멍흐코¹²¹⁾

‘잠녀’를 한자로 옮길 때는 ‘潛女’로, ‘잠수’는 ‘潛嫂’로 표기하는데 고문헌에는 ‘潛女’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문헌 기록에서 ‘潛女’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28(인조 6)년부터 1635(인조 13)년까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李健의 《濟州風土記》에서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採藿之女謂之潛女’¹²²⁾ 즉, ‘미역을 채취하는 여자를 잠녀’라고 한다는 점이다. 《知瀛錄》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보인다. ‘增減十事’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홉 번째로 ‘잠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전복을 따는 잠녀를 ‘採鮑潛女’, 미역을 채취하는 잠녀를 ‘採藿潛女’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¹²³⁾ 金春澤의 《北軒先生文集》 卷13 <潛女說>에도 잠녀에 대해 정의해 놓고 있다. 즉 ‘潛女者業潛水採藿或採鮑然採鮑比

118) 김영돈(1965), 앞의 책, <맷돌·방아노래> 중에서 99번 민요, p.28.

119) 앞의 책, <해녀노래> 중에서 902번 민요, p.236.

120) 앞의 책, <해녀노래> 중에서 953번 민요, p.250.

121) 앞의 책, 942번 민요, p.247.

122) 海産只有生鮑烏賊魚粉藿玉頭魚等數種又有名不知數種魚外更無他魚其中所賤者藿也採藿之女謂之潛女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入海採藿其採藿之時則所謂潛女赤身露體遍滿海汀持鎌浮海倒入海底採藿曳出男女相雜不以爲耻所見可駭生鮑之捉亦如之如是採取應官家所徵之役以其所餘典賣衣食其爲生理之艱苦已不足言而若有不廉之官恣生貪汚之心則巧作名目徵索無筭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况官門輸納之苦吏胥舞奸之弊罔有紀極又何望其衣食之資乎由是之故若值貪官則所謂潛女輩未有不丐乞者云 《濟州風土記》에 수록된 ‘잠녀’와 관련한 부분. 《濟州風土記》는 李健의 저서 《葵窓集》 卷5에 수록되었다. 제주학연구소의 《濟州學》 제4호에 영인, 수록된 자료를 재인용한다.

123) 進上搥引鮑專責於採鮑潛女九十名而老病居多不能支堪採藿潛女多至八百游潛水中深入採藿無異採鮑女

採藿甚難而苦'라고 해서 '잠녀는 물 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 미역을 캐고 전복을 따는 업을 하는 자로서, 전복 따는 일이 미역을 캐는 일보다 어렵고 고달프다'라고 기록해 놓아 잠녀의 어원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잠녀'에 대한 기록은 《肅宗實錄》 1702(숙종 28)년 7월 12일 기사¹²⁴⁾와 《正祖實錄》 1776(즉위)년 5월 20일 기사¹²⁵⁾, 《南槎日錄》¹²⁶⁾, 《瓶窩集》¹²⁷⁾, 《石北先生文集》¹²⁸⁾, 《耽羅誌草本》濟州牧 奇聞條¹²⁹⁾, 張寅植의 《耽羅誌》¹³⁰⁾, 《續陰清史》¹³¹⁾, 《耽羅紀年》¹³²⁾ 등에서도 보이는데, 모두 '潛女'로 쓰고 있다. '잠녀'의 다른 이름 '潛嫂'는 민간에서 발화되던 '잠수'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여자를 '潛女'라고 불렀다는 대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潛女'는 '잠녀'의 한자 표기로, 제주어 '즈물다'와 연관 있기 때문이다. '즈물다'는 '메역 즈물다(메역 즈문하다, 메역 줍다)'처럼 바다 속에 무자맥질해 들어가 호미로 미역을 채취할 때 쓰는 말이다. '잠녀'의 {잠}은 바로 '즈물다'에서 온 말로 짐작된다. '즈물다'는 또 '즈문하다', '줍다'와 대응한다. '잠녀·잠수'는 한자어 '潛女'·'潛嫂'로 풀 수도 있으나, 즈먹질(潛水질)이 čom-yək-으로 분석되기에 우리말 접미사 -ək~yək~ak 앞에 오는 čom-을 한자어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말 '줍다(潛)'로 풀어야 될 것이다. '줍다(潛)'는 중세 어형에 '드므다, 드무다, 듬기다, 듬다' 등으로 표기했는데, kɔm→tɔm→čɔm-의 변화과정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¹³³⁾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



124) 又言所謂漁戶兼行船格妻稱潛女一年納官者浦作不下二十疋潛女亦至七八疋一家內夫婦所納幾至三十餘疋而撻鰓各種爲賊魚粉藿等役皆自此出營

125) 鮑作潛女京納刁躑之弊嚴加禁斷也

126) 12월 초8일 기사 중. 余聞人皆並畜妻妾下吏輩必畜潛女爲其利己

127) 17卷 '濟州民瘼狀' 참조. 島中風俗男不採鰓只責於潛女女人官役對答者惟獨本州爲然況大靜旌義兩官則牧子羣頭皆以女保定給卽此推之境界可想夫以鮑作兼行舡格等許多苦役妻以潛女備納一年內進上藿鰓其爲苦役十倍於牧子槩以一年通計則鮑作所納之價不下二十疋潛女所納亦至七八疋一家內夫婦所納幾至三十餘疋則浦民之抵死謀避勢所固然

128) 耽羅女兒能善泅十歲已學前溪游土俗婚姻重潛女父母誇無衣食憂 <耽羅錄> 가운데 '潛女歌' 일부분.

129) 慕瑟里有一潛女未經痘者也

130) 先生錄 鄭啓章 夾註에 '丁未十一月到各浦潛女錄案及質鰓一款永爲革罷...'에 潛女가 보인다.

131) 雇潛女二人使之採鰓

132) 牧使許溟罷潛女採藿水稅

133) 이남덕, <제주무가의 어원학적 고찰>, 《제주도신곡》(글 현용준·이남덕, 사진 김수남), 열화당, 1989, p.100.

나 국물에 넣어서 푸는' 말다는 뜻의 '좁다'와 김치 담그다의 '듭다'도 같은 뿌리의 언어다. 따라서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여성'을 표기할 때 '아래아(·)'가 살아 있는 '좁녀'로 써야 하나 '·'가 현대 국어에서 'ㅏ'로 변했기 때문에 한글 '잠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한자 표기는 현재처럼 '潛女'로 쓰면 된다.

'좁수'에서 온 '潛嫂'는 옛 문헌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잠녀'보다 쓰임새가 적어 '물질하는 여성'을 대표할 용어로는 '潛女'가 더 적합해 보인다.

3.4. 참꽃나무

제주도는 1996년 도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상징 꽃¹³⁴⁾을 '영산홍'에서 '참꽃'으로 바꿨다. 기존 상징물인 '영산홍'을 학명에 맞게 '참꽃'으로 지정하기로 결정¹³⁵⁾한 것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한라산국립공원)를 보면, 제주도 상징 꽃인 '참꽃'은 '참꽃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제주도는 '참꽃'과 '참꽃나무', '영산홍'을 같은 개념의 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제주도청 여직원회의 회지 《영산홍》 3호를 보면, 제주도가 '영산홍'이 '참꽃'이자 '참꽃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산홍'은 제주도청 여직원회의 이름이기도 하다.

영산홍(瀛山紅)¹³⁶⁾은 학명으로 참꽃으로 부르는 우리 제주의 상징 꽃입니다. 우리 제주의 각박한 땅이나 바위틈에서 잘 자라고, 봄철 초록빛 숲 속에서 타는 듯한 붉은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들은 영산홍처럼 여러분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로 언제 어디서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홍은 잎이 가지 끝에 세 잎씩 달려, 우리의 자랑인 삼다·삼무·삼보·삼려를 나타내고, 세 잎과 다섯 꽃잎이 무더기로 돌아나, 도민의 단결 질서, 그리고 제주 여성의 평화로운 발전을 향한 밝은 기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¹³⁷⁾

134) 제주도는 1973년 11월 9일 제주도 꽃으로 '영산홍'을 지정했다. 그러나 1996년 3월 16일 제주도 상징물이 제주도에 대한 대표성과 도민 정서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징물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상징물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함께 제주도 상징물 선정 공모, 도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상징물 공모와 설문 결과 유채꽃이 1위를 차지했으나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에서 유채꽃은 작물이어서 상징성에 문제가 있다며 '영산홍'을 '참꽃'으로 바꿔 상징 꽃으로 결정했다.

135) 제주도, '도민현장 및 상징물 조정사업' 자료, 《제주도》(도승격 50주년 통권 100호 기념 특집호), 1996, p.337.

136) 식물학자 부종휴는 참꽃나무가 영주산, 즉 한라산에서 가장 아름답다하여 '瀛山紅'이란 별칭으로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같은 '진달래과'의 '映山紅'이 있는데 별칭으로 '瀛山紅'을 쓴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 행정기관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별칭을 20년 넘게 상징 꽃으로 지정했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위 예문은 참꽃나무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식물도감과 국어사전 등을 살펴 보면, ‘참꽃’과 ‘참꽃나무’·‘영산홍’은 서로 다른 개념의 꽃이어서 정확한 제주도 상징 꽃에 대한 명칭이 필요하다.

‘영산홍’과 ‘참꽃나무’의 차이는 식물도감에서도 드러난다. 식물도감에는 ‘영산홍’ 대신 ‘참꽃나무’가 등재되어 있다. 《大韓植物圖鑑》(이창복), 《濟州自生植物圖鑑》(이영노·이경서·신용만), 《濟州植物圖鑑》(제주도)은 모두 ‘참꽃나무’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위 세 도감의 공통점은 ‘낙엽관목으로 높이는 3~6m이며 어린 가지에 갈색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잎은 호생(互生)한다’는 것이다. 《식물학대사전》(송주택)에는 ‘참꽃나무’ 대신 ‘영산홍’이 올라 있는데 ‘두견화’와 같은 꽃으로 되어 있다.

김태정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에서 ‘진달래’와 비슷한 것으로 참꽃나무 영산홍 등이 있는데 이는 종이 다른 것¹³⁸⁾이라고 하였고, 서재철은 《제주도야생화》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낙엽 관목으로, 제주도 꽃으로 지정되어 있다¹³⁹⁾고 설명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참꽃’은 ‘진달래꽃’의 다른 말이다. ‘먹는 꽃’이라는 뜻이며, ‘개꽃’(철쭉꽃)의 반대말로 올라 있다. ‘진달래’와 ‘철쭉’이 ‘꽃’과 ‘꽃나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참꽃나무의 꽃’을 ‘참꽃’으로 부르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산홍’과 ‘참꽃나무’도 다른 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은 ‘철쭉과의 상록 관목’이며 참꽃나무(*Rhododendron weyrichii*)는 ‘낙엽 활엽 관목’이다.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에는 영산홍은 ‘영산백과의 한 품종으로 꽃이 붉게 피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참꽃나무는 ‘철쭉과에 딸린 갈잎좁나무로, 키 3~6m 쯤으로 가지에 거친 털이 있고, 모가 진 넓은 알꼴의 잎이 가지 끝에 3개가 모여난다’고 풀이해 서로 다른 식물임을 알 수 있다.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과 《국어대사전》(운평어문연구소 편),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등에는 ‘영산홍’은 올라 있지만 ‘참꽃나무’가 등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전은 영산홍에 대해서는 ‘상록 관목으로 높이는 1m 안팎’의 키 작은 진달래의 일종으로 풀이해 놓아 ‘참

137) 제주도청여직원회, 《영산홍》제3호, 1997, p.8. 도지사 격려사 중에서.

138)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 현암사, 1997, p.82.

139) 서재철, 《제주도야생화》, 일진사, 2004, p.24.

꽃나무'와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마다 설명이 다른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식물도감과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영산홍'과 '참꽃나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참꽃나무’와 ‘영산홍’ 비교

책 이 름	참 꽃 나 무	영 산 홍
《대한식물도감》 (이창복)	·한라산서 자라는 낙엽관목 ·키 3~6m. 잎 호생하지만 가지 끝에 2~3개씩 달림. 넓은난형. 꽃 잎과 더불어 5월에 피고 짐	
《제주자생식물도감》 (이영노·이경서·산용만)	·낙엽관목 ·키 3~6m ·잎 넓은 난형, 가지 끝에 3장씩 붙음 ·꽃 잎과 동시에 핼	
《제주식물도감》 (제주도)	·낙엽관목 ·높이 3~6m ·잎 호생하지만 가지 끝에 2~3개씩 달림 ·꽃 잎과 더불어 5월에 핼	
《식물학대사전》 (송주택)		·상록관엽 ·7월개화 ·두견화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철쭉과 낙엽활엽관목 ·높이 3~6m, 넓은 달걀모양 잎가지 끝에 3개씩 모여남 ·5월에 붉은 꽃잎과 함께 핼	·철쭉과의 상록관목 ·잎 피침모양 끝 둔함. 수술이 다섯개 ·꽃밥은 어두운 자색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철쭉과에 딸린 갈잎좁나무 ·키 3~6m. 모가 진 넓은 알꼴 잎 가지 끝에 3개 모여남 ·봄에 붉은 꽃 핼	·영산백과의 한 품종 ·꽃이 붉게 핼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영산백의 한 품종 ·석남과에 속하는 관목 ·높이 1m 이상, 가지 많고 잎은 호생하며 피침형. 담홍색 꽃 피는 것을 영산홍이라 함
《국어대사전》 (운평어문연구소편)		·진달래과 상록관목 ·높이 약 1m, 가지 많고 잎 어긋나고 피침형 ·담홍색 꽃 가지 끝에 달림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키 작은 진달래 일종 ·잎 동그랗고 작음 ·봄에 작은 분홍 또는 붉은 꽃 한데 많이 몰려 핼
《조선말대사전》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 연구소)		·진달래과 ·사철 푸른 넓은 잎나무의 한가지. 높 이 1미터 안팎 ·잎 가지에 어긋나게 붙음

* 설명 표기는 각 책에서 그냥 따옴

위의 도표에서도 드러나듯 ‘영산홍’과 ‘참꽃나무’는 서로 다른 꽃임이 명백해졌다. 식물도감과 국어사전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참꽃’은 먹는 꽃이란 뜻으로 ‘진달래’를 일컫는 말이지 별도의 植物名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상징 꽃 이름은 ‘참꽃나무’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4. 觀念語

觀念語는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쓴다. 관념적인 용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나아가 용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만 한다. 곧 뚜렷한 개념 정립 없이 언중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관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서귀포칠십리·女多·육지·중산간’이다.

4.1. 서귀포칠십리

‘서귀포칠십리’는 서귀포의 또 다른 상징이 되고 있다. ‘서귀포칠십리’는 1930년대 후반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박인수 노래로 널리 알려졌는데, 조명암 시 ‘서귀포칠십리’¹⁴⁰⁾는 서귀포의 상징노래비¹⁴¹⁾로 세워지기도 했다.

140) 조명암 시 ‘서귀포칠십리’는 작곡 과정에서 그 가사가 여러 번 바뀌었다. 서귀포 출신 수필가 김평윤은 개사곡이 서귀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원가사 찾기에 나서 원본 자료 입수에 성공했다. ‘서귀포칠십리 노래비’에 새겨진 것은 원래 가사다. 다음은 조명암 시 ‘서귀포칠십리’. “바닷물이 철썩철썩 / 파도치는 서귀포/ 진주케던 아가씨는/ 어디로 갔나/ 휘바람도 그리워라 / 뱃노래도 그리워/ 서귀포칠십리에 / 황혼이 온다// 금비늘이 반작반작/ 물에 뜨는 서귀포/ 미역따던 아가씨는/ 어디로 갔나/ 금조개도 그리워라/ 물과레도 그리워/ 서귀포 칠십리에 / 별도 외롭다// 진주알이 아롱아롱/ 꿈을 꾸는 서귀포/ 전복따던 아가씨는/ 어디로 갔나/ 물새들도 그리워라/ 자개들도 그리워/ 서귀포칠십리에/ 물안개 곱네”. 김평윤, <조명암(趙鳴岩) 시인의 인간과 문학>, 《평화와 건반》, 제주문화, 2004, pp.225~226.

141) 서귀포시는 1997년 4월 28일 ‘서귀포칠십리 노래비’(김평윤 고증, 김영학 조각)를 서귀포 외돌개 해안에 세웠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노래비가 훼손되자 2004년 4월 ‘서귀포칠십리 노래비 조형물’을 공모해 조각가 김혜숙 씨 작품을 선정, 2004년 8월 4일 서귀

‘서귀포칠십리’는 詩의 소재로, 민요의 노랫말로 쓰여지기도 한다. 근래 들어서는 서귀포를 대표하는 축제 이름으로, 감귤 상품 이름으로, 합창단 명칭 등으로 쓰이면서 서귀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귀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서귀포칠십리’는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동안 언론 등에서 ‘서귀포칠십리’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설만 확인한 채 뚜렷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역사적 자료에 바탕을 둔 거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異說은 차츰 세를 잃고 있다.¹⁴²⁾

김평윤의 <서귀포칠십리 재조명>¹⁴³⁾을 토대로 지금까지 나온 ‘서귀포칠십리’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략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① 옛 제주목에서 한라산을 넘으면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70리에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어 이것을 ‘서귀포칠십리’라고 한다.
- ② 정의곶(城邑)에서 서귀포까지 또는 대정곶에서 서귀포까지의 거리가 70리가 되기 때문.
- ③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양쪽에 기암절벽이 70리에 펼쳐져 있기 때문.
- ④ ‘서귀포칠십리에 물새가 운다’는 유행가처럼 상징적인 표현으로 서귀포에서 서귀포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계(視界)라는 것.
- ⑤ 6천리밖에 되지 않은 ‘만리장성(萬里長城)’을 매우 길다는 표현으로 ‘만리’라고 했듯이 서귀포의 아름다움을 숫자로 표현했다는 설.
- ⑥ 아름다운 서귀포의 해안가를 칭하는 말.

김평윤은 위의 자료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 자신이 수집한 자료 등을 인용해 ‘서귀포칠십리’는 정의현의 성문에서부터 서쪽 서귀포의 천지연 폭포까지¹⁴⁴⁾라고 밝히고 있다. 서귀포가 정의곶에서 70리였고, 자체 수집한 연로하신 분들의 정의곶에서 출발하여 길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서귀포까지 70리우다. 조심해서 갑서예.”라는 증언에 근거해 서귀포는 정의곶에서 70리, 이것을 ‘서귀포칠십리’의 시초로 봐야한다¹⁴⁵⁾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서귀포칠십리’는 거리에 의해서 생겨난 개

포 천지연 재해위험 3차 지구 내(옛 라이온스 호텔부지 내)에 노래비를 다시 설치했다.

142) 《한라일보》, 2003년 9월 25일자 참조.

143) 김평윤, 《평화와 건반》, 제주문화, 2004, p.146. 이 글에서 김 씨는 제주신문, 제주KBS, 제주MBC 등의 자료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서귀포칠십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144) 김평윤, <조명암(趙鳴岩) 시인의 인간과 문학>, 앞의 책, p.181.

145) 앞의 책, p.160 참조.

넘인 셈이다.

문헌 자료를 통해 이의 근거를 찾아보자. ‘서귀포칠십리’가 수록된 옛 문헌으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大同地志》, 《增補文獻備考》가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旌義縣 山川條 藻淵¹⁴⁶⁾ 夾註에 ‘在縣西七十里淵多蘋藻故名又有蟹’란 기록과 《耽羅志》旌義縣 山川條 西歸浦 夾註에 ‘在縣西七十里朝元時候風處’란 기록을 보면 정의현에서 서쪽으로 70리 거리에 ‘藻淵’과 ‘西歸浦’가 있었다. 《大同地志》卷12 旌義縣 山水條 西歸浦 夾註의 ‘西七十里’와 鎭堡條 西歸浦鎭 夾註의 ‘西七十里城周八百二十五尺…’이란 기록도 정의현에서 70리 거리에 ‘西歸浦’와 ‘西歸浦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卷33 輿地考 21 海防 30 西海之南 西歸浦 夾註에 ‘在西七十里朝元時候風處有城見城郭’, 卷35 輿地考 23 海路 3 西海亭館에 ‘…自洪爐川入西歸浦候風以發西歸之號由於朝元也元又於沿海立水驛自耽羅至鴨綠江并楊川海口凡三十所…’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西歸浦’는 고려 때부터 원나라에 조공하러 갈 때 바람을 기다리는 水驛이었을 뿐만 아니라, ‘西歸浦鎭’¹⁴⁷⁾·‘西歸浦水戰所’¹⁴⁸⁾ 등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중요한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西歸浦’가 입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西歸浦’는 지금의 서귀포 지역이 아니라 ‘西歸 浦口’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旌義縣에서 西歸浦까지 ‘70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다. ‘70리’라는 개념 속에는 ‘西歸浦’가 입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때문에 ‘서귀포칠십리’는 김평윤의 주장처럼 같은 ‘70리’ 거리지만, ‘정의골(성읍)’에서 천지연까지’라기보다는 역사적, 입지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성읍에서 서귀포 포구’까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4.2. 女 多

제주는 흔히 돌·바람·여자가 많다고 해서 ‘三多島’라 불려왔다. ‘삼다’는 곧 제주도의 상징이 되면서 ‘三無’라는 또 다른 상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돌과 바람이 많다는 것은 화산섬이라는 지질적인 측면과 태풍의 길목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비롯한다. 반면 여자가 많다는 것은 자연적 조건에 역사·사회적 환경이 더해져서 생

146) 天池淵.

147) 金正浩의 《大同地志》卷12 旌義縣 鎭堡條 참조.

148)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旌義縣 關防條 참조.

겨난 상징이다.

제주에는 왜 ‘여자가 많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조난하거나 사망하여 여성이 수적으로 많았던 데서 연유한다거나, 제주의 생활환경이 척박하여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女多’는 인구 통계의 비교보다는 제주 여성들이 근면하게 일한다는 비유¹⁴⁹⁾에서 생겼다고 관념하고 있다.

제주를 일컬어 ‘女多의 섬’이라고 부른 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風俗條에 있는 ‘女多男少’ 기록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중이라도 모두 절 옆에 집을 가지고 처자를 둔다¹⁵⁰⁾고 기술하고 있어 1480년 이전에도 제주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崔溥의 《漂海錄》과 《南槎錄》 《芝峰類說》 《耽羅誌》 등에도 보인다. 《漂海錄》 윤 정월 13일 기사에 보면, ‘貢船과 商船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바닷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 죽는 자가 열에 다섯 여섯은 되고,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는 많아 부모들은 딸을 낳으면 효도를 잘할 놈이라고 말하고, 사내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고래나 악어의 밥이라고 말한다.’¹⁵¹⁾라고 기록하고 있다.

《南槎錄》에도 남정 500에 여정은 800이나 되는데 남정보다 여정이 많은 것은 남자가 귀하기 때문이며, 사변을 만나면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살만이 어구에 세워 여정이라고 했다¹⁵²⁾. 《芝峰類說》의 ‘주민들은 바다로 집을 삼아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는 것으로 먹고 사는 業을 삼는데 해마다 풍랑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서 남자로서 埋葬할 수 있게 되는 자는 적다. 그런 때문에 남자는 적

149) 제주도, 《濟州道誌》제2권, 제11장 제1절, 1993, pp.998~999 참조.

150) 女多男少求婚者必備酒肉納采者亦然婚夕婿備酒肉謁婦之父母醉後乃入房俗多用燒酒女多男少皆作家寺傍以畜妻子

151) 孝枝曰我州邈在大海中水路九百餘里波濤視諸海尤爲洶暴貢船商舶絡繹不絕漂沒沈溺十居五六州人不死於前則必死於後故境中男墳最少閭閻之間女多三倍於男爲父母者生女則必曰是善孝我者生男則皆曰此物非我兒乃鯨鼈之食也 윤 정월 13일자 기사 중에서.

152) 余按本州城中男丁五百女丁八百女丁者濟州之語也蓋男丁甚貴若遇事變守城則選民家健婦發立塚口稱爲女丁三邑同然州俗多並畜妻妾然浦作輩多有鰥居而老死者 《南槎錄》 1卷 참조. 이 기록에는 崔溥의 《漂海錄》 기사 중 제주 사람 記官 孫孝枝의 이야기를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漂海錄》(《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十六集》 <錦南集>卷3, p.424)을 보면, 孫孝枝가 아니라 李孝枝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 과정에서 李씨를 孫씨로 잘못 옮긴 것 같다.

고 여자가 많다. 그 까닭으로 한 남편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린 자가 많다.¹⁵³⁾는 기사를 보더라도 제주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을 대신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耽羅誌》 기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사를 인용해 ‘女多男少’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가 ‘女多의 섬’이라는 사실은 《朝鮮王朝實錄》과 《濟州邑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연도별 제주 인구 추이

단위: 명, 남자/여자

연 도	제 주	대 정	정 의	총 계	남 자	여 자
1434(세종16년)				63,474		
1435(세종17년)				63,093		
1452.3~1454.3	8,324	8,500	2,073	(18,897)		
1672(현종13년)				(29,578)	12,557	17,021
1780~89(정조연간)	17,074/22,300	3,653/4,810	6,306/8,100	(62,243)	(27,033)	(35,210)
1792(정조 16년)				64,582	27,870	36,712
1793년경	17,130/22,981	3,934/5,092	6,789/8,592	(64,518)	(27,853)	(36,665)
1836(현종2년)				(75,120)	35,953	39,167
1837(현종3년)				(75,882)	35,149	40,733
1843년경	21,443/26,046	5,925/6,741	6,818/8,345	(75,318)	(34,186)	(41,132)
1842(현종8년)				76,081		
1846(현종12)				76,701		
1850(철종1년)				(79,910)	37,771	42,139
1855(철종6년)				(81,896)	38,704	43,192
1858년(철종9년)				(93,154)	49,421	43,733
1873(고종10년)				(88,972)	39,965	47,962

* 연도인 경우는 《朝鮮王朝實錄》과 《邑誌》류를 참조하였다. 세종은 《世宗實錄》, 현종은 《顯宗實錄》, 헌종은 《憲宗實錄》, 철종은 《哲宗實錄》, 고종은 《高宗實錄》을 말한다. 《濟州邑誌》는 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는 1793년 경, 李源祚 《耽羅誌草本》은 1843년 경에 발간되었다. ()안은 필자가 합산한 숫자다.

위의 표를 보면 《朝鮮王朝實錄》과 《濟州邑誌》에 실린 제주 인구는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남녀 인구수를 비교해 놓은 《顯宗實錄》

153) 耽羅在絕海中居人以海爲家以漁採爲食歲多漂溺男子之得葬者寡矣以其男少女多故一夫而數十妻者有之

顯宗 13(壬子, 1672)년 10월 30일자 기사에 제주 삼읍 인구가 보고되어 있는데, 8,495호에 남자가 12,557명, 여자가 17,021명으로 여자가 4,464명이 많다. 이 기사에는 또 우리나라는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다고 보고하면서도 호적에 들지 않은 여자가 매우 많고, 다만 호적에 기입된 숫자에 근거하여 발표했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어 실제 남녀 인구 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¹⁵⁴⁾

《正祖實錄》 정조 16(壬子, 1792)년 기사에도 남자 27,870명, 여자 36,712명으로 여자가 8,842명이 많고, 《憲宗實錄》 헌종 2(丙申, 1836)년 12월 29일 기사에는 남자가 35,953명, 여자가 39,167명으로 여자가 3,214명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헌종 3(1837)년에는 남자 35,149명, 여자 40,733명으로 여자가 5,584명, 《耽羅誌草本》에는 남자 34,186명, 여자 41,132명으로 여자가 6,946명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제주 지역이 수적으로도 ‘女多의 섬’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주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도표를 보면 1452년 3월부터 1454년 3월에 만들어진 《世宗實錄》 <地理志>에 수록된 인구와 1672(현종 13)년의 인구 파악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 1858(철종 9)년에는 남자 49,421명, 여자 43,733명으로 남자가 5,688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인구 추이를 볼 때 남자 수가 많다는 것은 오류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보다 3년 앞선 1855(철종 6)년의 남자 수가 38,704명인데 반해, 15년 뒤인 1873(고종 10)년의 남자 수는 39,965명으로 49,42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이 여자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다는 것도 한몫 한다. 석주명은 女多 현상에 대해 출산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만 높은 비율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고, 출가인이 남자가 많은데서 찾고 있다. 제주도가 ‘女子의 島國’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근로정신이 높고, 남자의 수보다 여자 수가 많은 것도 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여자가 활동적인 것은 육지와는 다른 미풍이므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등의 관계로 女多 현상이 나타나는데 육지의 문화가 농후히 이입될 때는 희미해질 운명을 가진 현상이라고¹⁵⁵⁾ 진단하기도 했다. 女神이 많은 것을 女多의 한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풍수설에 기인한다¹⁵⁶⁾는 속설도 있다.

154) 大抵我國女多男少而女子之不入籍者甚多辛亥饑疫民死者相望流離相繼此則只據入籍之數而載之

155)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112, p.199 참조.

156) 《濟州邑誌》 風俗條에 보면 ‘女多男少俗稱山岳多雄峯故云’이라는 대목이 보인다.

근·현대에 들어서서 발생한 일제의 강제 징용과 4·3 사건, 6·25 전쟁 등 격랑 속에 남자들의 희생이 컸던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산아 제한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지금은 男兒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어 ‘女多의 섬’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제주도 인구(주민등록인구)는 남자 275,632명, 여자 278,232명으로 총 553,864명이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女多’는 섬사람들의 아픔이 짙게 깔린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여도’와 같이 구슬픈 전설이 생겨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섬에서 태어난 제주 남자들은 각종 부역에 시달리면서 희생되는가 하면 바다로 나갔다가 고기밥이 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제주의 부모들이 딸을 낳으면 효도를 잘할 놈이라고 말하고, 사내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고래나 악어의 밥이라고 했겠는가. 남성들의 이런 희생은 제주의 여성들을 더욱더 강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女多의 섬’이란 별칭은 단순히 제주 여성들의 부지런하고 강인하다는 관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면에는 섬사람들의 숙명적인 죽음이라는 아픔이 짙게 깔려 있다. ‘女多’를 여성 인구수에 두지 않고 근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관념을 양산한 것은 제주 여성들의 아픔과 수고로움에 대한 강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4.3. 육 지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을 보면, ‘육지’는 ①지구의 표면에서 바다를 뺀 나머지 부분, ②섬이 아닌 본토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지’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뛰어 넘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육지는 일차적으로 제주 이외의 본토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육지는 또 바다를 경계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사람에게는 憧憬과 理想이 넘치는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제주와는 문화와 풍속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배타적인 속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배타적인 성격은 제주 사람만이 갖는 것은 아니다.

문헌 자료를 보면 ‘육지’는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지닌 어휘다. 육지에 대한 여러 관념은 섬과 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양산한 것이라 판단된다.

《南槎錄》과 《大同地志》를 보면, 楸子島를 이루는 ‘身島’와 ‘別島’ 두 개의 섬을 제주와 육지의 경계로 삼고 있다. 두 섬의 以北은 육지이며, 以南은 제주로 표기해

놓았다. 바닷물 색깔은 혼탁하고 물결이 높지 않지만, 제주 바다는 물빛이 매우 검푸르고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높다는 의견도 보태고 있다.

余見楸子島在海南之迤南濟州之迤北有身島別島…身島周數十里別島十餘里自島以北謂陸地海水色混濁波浪不高自島以南謂之濟州海水色深碧無風浪高火脫一帶水勢尤險¹⁵⁷⁾

楸子島在州北海中今移屬靈岩郡上下二島也有元時水站古址其主峯曰身島自海南入濟州楸居其半楸以竝謂之陸地海水色混濁波浪不高楸以南謂之濟州海水色深黑無風而浪高有身島別島之異¹⁵⁸⁾

《南溟小乘》 11월 9일 기사 陸地 夾註에 ‘州人爲稱我旺¹⁵⁹⁾陸地(제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육지라 칭한다)’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육지’란 용어는 제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다. 石宙明도 제주인은 半島를 陸地라하고 半島人을 陸地人이라고 한다¹⁶⁰⁾고 했다. 玄平孝는 ‘육지’란 말 대신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타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¹⁶¹⁾로 ‘밖기’란 표현을 쓰고 있다.

육지 사람들은 제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주 사람들은 또한 육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헌에 나타난 대강의 기록을 통해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자.

육지 사람들은 제주를 사람이 살 곳으로 여기지 않고 유배의 땅으로 여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죽음을 걸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風俗이 다른 것도 그들을 힘들게 했다. 따라서 육지 사람들은 관직을 제수하고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제주에 가는 것을 ‘죽을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고¹⁶²⁾ 제주를 미개한 곳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소는 매우 많이 키우나 그 맛은 육지의 소만 못하다거나¹⁶³⁾ 천택(川澤)이 육지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다¹⁶⁴⁾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육지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성도 느낄 수 있다. 《高宗實錄》 고종 28(辛卯, 1891)

157) 金尙憲(1602), 앞의 책, 1월 28일 기사 중에서.

158) 金正浩, 앞의 책, 卷12, 濟州牧 島嶼條 楸子島 夾註 중에서.

159) 旺은 國과 同字.

160) 石宙明(1968), 앞의 책, p.120.

161)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제1집 자료편), 精研社, 1962. p.447.

162) 大槩陸地之人雖在沿海者除非自己興利之事則視往濟州如入死地皆欲謀避本島人雖空往空返得出陸地如望天堂此則余往來時所親驗以此觀之其中困苦之狀槩可想矣 金尙憲, 앞의 책 참조.

163) 牛畜則多有價不過三四丁而味不及陸地者皆山野不食穀物故也 金淨, 《濟州風土錄》 참조.

164) 島中川澤不似陸地之淨洌亦無所產之魚族而只有銀口魚 李健, 앞의 책 참조.

년 8월 20일자 기사에 나타난 ‘島風習雖異於陸地宣布德意逐事檢飭其何能不歸化乎’라는 말 속에는 육지인들의 우월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도 비슷한 견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오랜 세월 무거운 진상과 관리들의 수탈을 견뎌온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인다. 갖은 부역과 진상에 시달리고,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희생됨으로써 육지를 거부하는 피해 의식이 강하게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浦作之役比前尤苦本州貢案別進上搥鰓條鰓引鰓司宰監貢物大中灰鰓並一萬八十餘貼烏賊魚一千七十餘貼皆取辦於三邑浦作其他海菜守令以廉價勒買復令此輩買販於陸地倍價督納以爲肥己之資¹⁶⁵⁾

위의 《南槎日錄》의 기록을 보면, 포작인들의 역은 더욱 심해졌는데, 본주의 공안에는 搥鰓, 條鰓, 引鰓을 따로 진상하는가 하면 司宰가 감독하는 공물은 大中 灰鰓이 아울러 1만 80여 첩, 오징어 1천 70여 첩인데 모두가 삼읍의 포작으로부터 거둔다고 되어 있다. 또 海菜는 수량이 혈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포작인으로 하여금 육지에다 내다 팔아오게 하여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밀천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보면,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은 육지에서 온 고을 원들에 의해 더 커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육지 사람이 제주에 오는 것을 ‘죽을 곳’에 오는 것에 비유하는 것과 달리 제주 사람들은 ‘비록 헛되이 가고 헛되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육지로 나가는 것을 天堂을 바라보는 것같이 한다’¹⁶⁶⁾. ‘(육지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고을 사람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을 알릴 수 있기 때문’¹⁶⁷⁾이라는 《南槎日錄》의 기사는 곧 제주인들이 육지 사람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한 이유가 되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다룬 현기영의 장편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의 다음의 대목은 제주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165) 李增, 《南槎日錄》, 12월 초 8일 기사 중.

166) 주 154) 참조.

167) 勿令上京今若復開此路吾州之民庶或得洩冤抑云 金尙憲, 앞의 책 참조.

제주출신이 고을 원을 하는 것은 섬 백성에게 꼭 소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병휘 같은 일년 과객(過客)이나 다름없는 육지인이라면 맘놓고 토색질하다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섬 출신 수령은 벼슬이 갈려도 이 고장에 불박혀 살아갈 신세인데 입 큰대로 욕심을 채웠다간 두고두고 백성의 원성을 듣게 마련이었다.¹⁶⁸⁾

육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대 들어서도 그 색깔이 얼어졌다고는 하나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적, 대문, 걸인이 없다는 三無의 고장에 걸인이 생긴 것은 대개 추자도에서 온 사람¹⁶⁹⁾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거나 ‘육짓놈·육지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은 과거 피해만 당했던 제주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인 동시에 과거의 피해 의식을 상쇄시키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제주 사람들은 그러나 육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만 갖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외의 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 ‘밖기’는 제주를 ‘안’, 그 외의 지역은 ‘바깥’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게 한다. ‘밖기’라는 표현 속에는 ‘안’은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을 의미하고, ‘밖’은 열린 공간으로 넓은 세계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공부하러 간 자식을 두고 ‘밖에 나장 공부햐수다’라고 설명할 때는 ‘제주보다 좀더 큰 곳 곧, 육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으스대는 마음도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어찌되었든 제주인들은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內集團 意識을 바탕으로 거부하고, 육지 사람은 제주의 생활세계 속에서 외부인으로 항상 인식하는데 對面 관계에 기초한 익숙함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특성을 더욱 드러나 보이게 한다.¹⁷⁰⁾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육지’는 오랜 역사를 두고 생겨난 어휘다. 제주와 본토를 경계 짓는 공간과 거리 개념으로 생성된 ‘육지’가 시간이 흘렀지만, 제주 사람과 육지사람 모두에게 내면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용어인 것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168)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비평사, 1983, p.51.

169) 石宙明, 앞의 책, p.106.

170) 庾喆仁, <제주사람들의 文化的 正體感>, 《耽羅文化》 제5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p.74, p.85 참조.

4.4. 중산간

‘중산간’은 제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다. 제주에서는 보통 표고 200~600m 사이의 지역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부른다. 해안 변 지역과 한라산체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 말은 학술적 용어는 아니며 편의상 통용되는 제주도적인 용어이다.¹⁷¹⁾ ‘중산간’이란 용어는 개발이 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외연적 토지 이용 개발 대상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산간 지대라는 말을 쓰고¹⁷²⁾ 있어 중첩적 의미를 지닌다. ‘중산간 지대·중산간 마을·중산간 도로·중산간 개발’ 등은 모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국어사전에 올라있지 않다. 다만 일부 사전에 ‘중산간 도로’가 등재되었을 뿐이다.¹⁷³⁾

중산간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인다. 4·3사건 때 소개된 후 방치되었던 ‘웃드르’ 개발에 행정의 관심이 쏠리면서부터이다. 제주도는 1962년 金榮寬 도정이 ‘4·3 사건의 이재민 복귀는 중산간 개발의 첩경’이란 슬로건을 내걸어 정착 사업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국에서는 이 해에 버려진 중산간에 이재민 8백 16세대, 4천 1백여 명을 복귀시켰고, 국고보조와 美公法 480호에 의한 농경지 개간 사업도 착수¹⁷⁴⁾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중산간 개발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중산간’이란 용어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조선총독부가 1929(소화 4)년 펴낸 《生活狀態調査》(濟州島)를 보면, 토지 이용 지대를 삼림 지대(한라산의 총칭으로 밀림이 2리 이상 폭으로 된 곳), 산간 지대(밀림 지역에서 중간 지대에 이르는 2~3리 폭을 둘러싼 지역), 중간 지대(산간 지대와 해안 지대의 중간으로 한라산 기슭 1~2리 폭을 둘러싼 곳), 해안 지대(평지에 속하고 해안 일주도로 좌우 1리 내외 지역)로 나누고 있다. 李殷相은 《耽羅紀行》(1937)에서 경작 지대(200m 이하), 중간 지대(방목 지대·200m 이상), 산간 지대(300m 이상), 삼림 지대(600m 이상), 관목 지대

171) 김길홍, <중산간 개발과 보전 및 이용방향>, 《제주도》(통권 101호), 제주도, 1997, p.98.

172) 제주도·제주도종합개발계획위원회, <濟州綜合10個年開發計劃草案>, 1970, p.93.

173) 중산간도로(中山間道路)가 등재된 국어사전은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7), 운평어문연구소 편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이다. 이들 사전에 따르면, ‘중산간도로’는 해발 100~300m 고지대에 부설한 도로다.

174) 《제주신문》, 1979년 12월 7일 자 참조.

(1400m)¹⁷⁵⁾로 나누고,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제주에서 생활한 石宙明은 삼림 지대(600m 이상), 산간 지대(300m 이상), 중간 지대(200m 이상), 해안 지대(200m 이상)¹⁷⁶⁾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은 고도와 경사도에 따라 표고 200m 이하, 경사도 4° 이하의 매우 완만한 ‘해안 저지대’, 표고 200~600m에 이르는 ‘중산간 지대’, 표고 600~1,200m에 이르고 10~20°의 다소 경사가 급한 사면을 이루고 있는 ‘산악 지대’, 표고 1,200m 이상이고 20°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고산 지대’로 나누고 있다.¹⁷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1945년 이전까지는 ‘중산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편의상 부르던 용어가 오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토지 이용에 따라 단순하게 지대를 구분했던 것이 지금은 ‘중산간’ 일대가 각종 개발지로 부상하면서 토지 이용 개발을 위한 지정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중산간’은 ‘중간 지대’와 ‘산간 지대’가 합쳐서 만들어진 造語로서 독립적으로 완전한 용어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 것 그대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행정에서는 대체로 ‘개발 용어’로 바뀌 쓰고 있어 뚜렷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용어이다.



175) 李殷相, 앞의 책, p.171.

176) 石宙明(1968), 앞의 책, p.10.

177) 濟州道, 《濟州道誌》(제1권), 1993. p.53

Ⅲ. 結 論

지금까지 제주학 정립을 위해 地名, 人名, 口碑傳承, 觀念語 등 4개 범주로 나눠 16개의 용어를 고찰하였다. 고찰 대상으로 삼은 용어는 地名으로 한라산·영실·天池淵·선홍꽃, 人名은 崔溥·徐憐·李禧·愼哉祐, 口碑傳承은 선문대할망·이여도·잠녀·참꽃나무, 觀念語는 서귀포칠십리·女多·육지·중산간 등이다. 문헌과 각종 자료를 확인, 검토하여 여러 가지로 쓰이는 용어는 하나로 통일하고, 잘못된 이름과 지명은 바로잡았다.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은 채 臆炙되며 관념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제주학의 정립 곧, 제주문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 몫으로 남겨둔다.

고찰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1) ‘한라산’은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란 의미에서 한자로 옮기면서 ‘漢拏山’으로 쓰여져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漢拏山’을 한글로 옮기면 ‘한나산’이려야 맞다. 게다가 ‘拏’는 방언과 운모에 따라서 [나, 냐, 녀]로 읽고 있을 뿐 [라]로 읽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한라산]으로 읽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글 표기 ‘한라산’은 한자를 옮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순수한 우리말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巫歌와 民謠 속에 등장하는 ‘할락산·할로산·하로산·한로산·한라산’ 등의 현실 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지명 표기에서 어중 어말의 ‘na’는 ‘~r(l)a~’로 읽고, 한자 표기는 ‘羅’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漢拏山’ 대신 ‘漢羅山’으로 써야 하는데 그 근거는 太祖 御製詩 ‘耽羅 蒼蒼一點漢羅山遠在洪濤浩渺間...’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靈谷·瀛室·瀛谷·靈室·修行洞·行道洞·五百羅漢·五百將軍·千佛峰·石羅漢’ 등으로 표현되는 ‘영실’은 한라산 골짜기의 순우리말 지명이다. 그런데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靈谷·瀛室·瀛谷·靈室’ 등으로 문헌마다 混淆되어 있다.

{영실}은 {영}과 {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말 지명이기 때문에 한자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은 계곡의 순우리말로써, ‘峪’의 훈이 ‘실’이었음이 옛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실’을 굳이 한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른 시기의 문헌 《南溟小乘》에 나오는 ‘靈谷’으로 쓰는 게 좋을 듯하다. ‘靈室’의 한자 뜻을 빌려 ‘신령이 사는 곳’이라거나,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던 靈山의 모습에서 靈室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지연’은 한자표기가 ‘天地淵’과 ‘天池淵’ 두 가지로 혼용되어 용어 통일이 시급하다. 법적으로는 ‘天地淵’을 쓰고 있지만 ‘천지연’은 못 이름인데다 옛 문헌 속에도 ‘天池淵’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天池淵’으로 바꾸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문헌 속에 나오는 ‘天地’는 ‘天池’의 오기로 생각된다.

서귀포시의 13개 동 가운데 하나인 ‘천지동’의 한자 표기도 ‘天地洞’이 아니라 ‘天池洞’으로 써야 한다. 그래야만 ‘천지연과 천지연 폭포를 끼고 있는 데서 유래했다’는 洞名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4)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소재 ‘선흘꽃’은 동백나무가 많다하여 본래의 이름 대신 ‘동백동산’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동백동산’이란 이름은 1971년 제주도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이래 학계에서는 ‘선흘꽃’보다는 ‘동백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흘꽃’을 고수하고 있고, 확인한 결과 동백나무도 그리 많지 않다.

‘선흘꽃’은 國語史的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 용어이다. 이를테면 ‘善屹(先佺)’의 ‘屹’은 ‘忽’과 대응되는 고구려 계통의 고대국어이며, ‘수풀’의 뜻을 지닌 ‘꽃(고지)’은 중세어 흔적이 남아 있는 어휘다. ‘선흘꽃’과 ‘동백동산’으로 이원화한 지명을 ‘선흘꽃’으로 통일시켜 살려 쓰는 것은 제주 문화와 언어의 뿌리를 찾는다는 큰 의미도 담겨 있다.

5) 우리나라 최초의 표해록 《錦南漂海錄》의 저자 ‘崔溥’는 ‘최부’와 ‘최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다. 그러나 ‘최부’로 읽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국역본 《표해록》(국립중앙도서관) 서두 ‘상인신최부 제취서 표류

하야'에서 '최뵈'로 적고 있고, 방손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 명칭만 봐도 '부'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상성 '麿'에 보면 중성을 '오'로 읽는 것은 俗音이라고 하였고, '우, 유'로 읽는 것이 바른 음이라고 하였다는 기록 또한 '부'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 徐憐은 중종 10년 제주 관관 당시 뱀 신에게 한 해에 한 번씩 마을 처녀를 희생으로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퇴치하고 돌아와서 며칠 후에 죽었다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전설의 주인공 徐憐의 이름 '憐'이 '隣'과 비슷해선지 구전되면서 '徐隣'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憐'의 부수 '尗'을 '火'로 오인해 빚어진 결과이다. 徐隣의 한글 음 '서런'을 '서연'으로 쓰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7) 제주 목사 재임 기간에 '藏修堂'을 지어 제주의 학문을 일으킨 '李禕'는 필사와 번역 과정에서 '李禕'로 誤譯되어 본이름보다 바뀐 이름이 더 알려진 경우다. 부수 '尗 의(尗)'를 '보일 시(示)'로 착각해 필사와 번역 과정에서 '괴'를 '회'로 잘못 읽음으로써 빚어진 결과라 여겨진다. 《延安李氏家乘》을 보면 '李禕' 형제들의 향렬이 모두 '尗'변의 '禕·禕·禕' 등이어서 '禕'일 가능성이 크다. 《延安李氏家乘》에 실린 이름의 부수가 모두 '尗'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문헌상에 기록된 '尗'변의 '會'도 '괴'로 읽어야 마땅하다.

8) 조선 고종 때의 문신 '신재우'는 절부암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러나 '신재우' 관련 자료를 보면, '愼栽祐·愼栽祐·愼栽祐·愼哉佑·愼載佑·愼栽佑' 등으로 이름이 여럿이어서 혼란을 준다. 《高宗實錄》을 비롯해서 <業武康土喆妻高氏表節碑>, <節婦高氏設置香火勸善錄>, <節婦高氏第二次設置香火勸善錄>, 《續陰晴史》에는 '愼栽祐'가 실려 있다. 《國朝文科榜目》에는 '愼哉佑', 《續修三綱錄》에는 '愼栽祐', 《耽羅紀年》과 南萬里의 《耽羅誌》에는 '愼栽祐'로 표기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록보다 국가기록을 신뢰한다고 하면 '신재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新字典》을 보면 '栽'와 '栽'는 같은 字라고 되어 있고, '祐'와 '佑'는 통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愼栽祐·愼栽祐·愼栽佑·愼栽佑' 등 네 가지로 써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앞선 문헌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裁’보다는 ‘裁’, ‘佑’보다는 ‘祐’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9)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 등으로 혼용해 쓰는 제주 창조설화의 주인공은 ‘선문대할망’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문대·선문대·선맹디·설문대·설명두·세명뒤·설명지·마고할망·沙曼頭姑·雪慢頭姑’ 등으로 불리는 할망 이름이 구전되면서 많은 異稱을 양산했는데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도 용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은 ‘선문대’와 ‘설문대’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선문대’, 행정 등에서는 ‘설문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50·60년대 자료에 ‘선문대할망’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보면 ‘선문대’가 먼저 생긴 용어임을 판단할 수 있다. 張漢喆의 《漂海錄》에 보이는 ‘洗麻仙波·洗麻姑’와 ‘선문대’ 발음이 유사한 점에서도 ‘설문대할망’보다 ‘선문대할망’이 앞선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10) ‘이어도’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어도·이허도’라는 별칭을 양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도’라는 이름이 널리 확산된 것은 문학작품 표제와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 공동으로 마라도 해상에 있는 ‘소코트라 암초’를 탐사하면서 ‘이어도 탐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앞장 서서 등부표와 수중 표식,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름으로 ‘이어도’를 써왔는데 설화와 민요 속에 등장하는 ‘이어도’ 대신 ‘이허도’가 제주를 상징하는 용어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이상향에 어울리는 용어로는 ‘이어도’보다 ‘이허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11) 바다에서 물질하는 여성을 두고 제주에서는 ‘잠녀·잠네·잠수·潛女·潛嫂·海女’ 등으로 부르고 있어 대표 용어를 무엇으로 써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민간에서는 아직도 ‘잠녀·잠네·잠수’로 부르고 있으며,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潛女·潛嫂’이다. ‘海女’는 일제강점기 이후 활발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제주어에 ‘즈물다’라는 말이 있다. ‘메역 즈물다(메역 즈문허다, 메역 줌다)’처럼 바다 속에 무자맥질해 들어가 호미로 미역을 채취할 때 쓰는 말이다. ‘잠녀’의 ‘잠’은 바로 ‘즈물다’에서 온 우리말임을 알 수 있다. ‘잠녀’는 곧 ‘잠다’의 {잠}에 여성

을 나타내는 {女}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잠녀’로 써야 하나 ‘·’가 현대 국어에서 ‘ㅏ’로 변했기 때문에 ‘잠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 표기는 현재 처럼 ‘潛女’로 쓰면 된다.

12) 제주도의 상징 꽃은 ‘참꽃나무·참꽃·영산홍’으로 혼호해 부른다. 제주도는 1996년 도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 상징 꽃 이름을 ‘영산홍’에서 ‘참꽃’으로 바꿨다. ‘영산홍’을 학명에 맞게 ‘참꽃’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도감과 국어사전 등을 참고해 보면 ‘참꽃’과 ‘참꽃나무’, ‘영산홍’을 같은 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영산홍’은 철쭉과의 상록 관목인데 비하여 ‘참꽃나무’는 낙엽 활엽 관목이다. 꽃나무의 크기도 ‘영산홍’이 1m 정도인 반면 ‘참꽃나무’는 3~6m 정도로 꽃나무 특성이 다르다. ‘참꽃’은 일반적으로 ‘진달래꽃’의 다른 이름으로, 먹는 꽃을 뜻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상징 꽃 이름은 ‘참꽃·참꽃나무·영산홍’으로 뭉뚱그려 쓸 것이 아니라 ‘참꽃나무’로 정립해야 한다.

13) 서귀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서귀포칠십리’는 ‘在縣西七十里朝元時候風處’(《耽羅志》 등)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旌義縣廳이 있었던 城邑에서 西歸浦까지의 거리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旌義縣을 다스리는 고을 원으로서의 ‘西歸浦’가 단순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고려 때부터 원나라에 조공하러 갈 때 바람을 기다리는 水驛이었을 뿐만 아니라 ‘西歸浦鎭’·‘西歸浦防護所’·‘西歸浦水戰所’가 있었던, 입지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旌義縣에서 西歸浦까지 ‘칠십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을 뛰어넘는 함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귀포시가 간직하고 있는 향토성과 서정성을 담보한 시와 노래, 조형물 등이 만들어지면서 상징적 의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14) ‘女多의 섬’이란 관념을 제주 여성의 근면성과 부지런함에서만 찾는 것은 잘못이다. ‘女多’라는 관념은 자연적 조건에 역사·사회적 환경이 더해져서 생겨난 상징이기 때문이다. ‘중이라도 모두 절 옆에 집을 가지고 처자를 둔다(女多男少)’(《新增東國輿地勝覽》),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는 많다’(《漂海錄》), ‘남정 500에 여정은 800이나 되는데 남정보다 여정이 많은 것은 남자가 귀하기 때문이다’(《南槎錄》)는 등의 기록은 오래 전부터 제주가 ‘女多의 섬’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다. 《朝鮮王朝實錄》과 《濟州邑誌》에 나타난 인구 추이를 통해서도 제주는 ‘女多’ 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女多’를 여성 인구수에 두지 않고 근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오늘날과 같은 관념을 양산한 것은 강인하고 억척스럽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 여성들의 아픔과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5) 육지는 일차적으로 제주 이외의 본토를 가리키는 용어로 거리와 공간 개념이 중첩된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도적’인 용어이다. 추자도를 이루는 ‘身島’와 ‘別島’ 두 개의 섬을 경계로 섬의 以北은 ‘육지’, 以南은 제주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는 육지 사람들에게 유배의 땅이자 ‘죽을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깔려 있지만, 육지인에게 핍박과 수난을 받아온 제주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배타적인 속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경과 이상이 넘치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제주섬이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육지는 넓고 열려 있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이란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해 있다.

16) 제주에서는 보통 표고 200~600m 사이의 지역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해안 변 지역과 한라산체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 말은 행정에서 편의상 부르던 용어가 오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중산간’은 ‘중간 지대’와 ‘산간 지대’가 합쳐 만들어진 造語로서 독립적으로 완전한 용어가 아니다. ‘중산간’은 편의상 통용되는 제주도적인 용어로서, 학술용어가 아니다. 개발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땅이란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외연적 토지 이용 개발 대상지를 지칭하는 중첩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뚜렷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용어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글을 쓰거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때는 추측이나 짐작만으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뜻까지 헤아려 보아야 마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라산’의 한자명 ‘漢拏山’의 ‘拏’는 ‘라’로 읽지 못함에도 ‘은하수를 잡을 만큼 높다’는 해석에만 매달려 오늘날까지 왔고, ‘영실’도 골짜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 지명인데도 ‘신령이 사는 집’과 같은 한자 해석이 언중들 사이에 유효하게 적용된 것은 기존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상징 꽃 ‘참꽃나

무'는 '참꽃'이나 '영산홍'과는 엄연히 다른 꽃임에도 20년 넘게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결과이다.

인명인 경우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전 확인 없이 2차, 3차 자료에 의존한 결과이며, 조선시대 인구 통계가 자료마다 들쭉날쭉한 것도 원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역과 번역본 가운데 상당수 자료에서 오자와 탈자가 발견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헌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전 확인과 원전 속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어사전과 식물도감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 부분은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과 함께 정립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무릇 제주학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등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제주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통합하고,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수집, 정리할 수 있는 '濟州學資料館'(가칭)이 필요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등 행정 기관과 지역 대학·연구 기관(단체) 등은 '濟州學資料館'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제주학을 정립하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資 料

- 《三國遺事》(崔南善 編, 瑞文文化社, 1983)
- 《高麗史》(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3)
-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1986)
- 《新增東國輿地勝覽》(朝鮮古書刊行會, 1912)
- 《國朝文科榜目》(太學社, 1984)
- 《續修三綱錄》(皇城宮洞新刊, 1904)
- 《漂海錄》(崔溥, 《錦南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96)
- 《濟州風土錄》(金淨, 《冲庵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96)
- 《南溟小乘》(林悌, 濟州島史研究會 影印本, 1995)
- 《南槎錄》(金尙憲, 《濟州史資料叢書(1)》, 濟州道 影印本, 1998)
- 《芝峰類說》(李晬光, 乙酉文化社, 1994)
- 《濟州風土記》(李健, 제주학연구소 影印本, 1999)
- 《耽羅志》(李元鎮,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91)
- 《南槎日錄》(李增, 濟州文化院 影印本, 2001)
- 《知瀛錄》(李益泰, 濟州文化院 影印本, 1997)
- 《南宦博物》(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 《瓶窩集》(李衡祥,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96)
- 《北軒先生文集》(金春澤, 景仁文化社 影印本, 1993)
- 《耽羅地圖并序》(李奎成, 奎章閣 影印本)
- 《耽羅別曲》(鄭彥儒, 濟州文化院 影印本, 1999)
- 《漂海錄》(張漢喆, 宋昌彬 譯, 日本 新幹社 影印本, 1996)
- 《耽羅錄》(申光洙, 《石北先生文集》, 景仁文化社 影印本, 1994)
- 《濟州大靜旌義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82)
- 《濟州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82)
- 《耽羅誌草本》(李源祚,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89)
- 《耽羅錄》(李源祚,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89)

- 《耽羅地圖并識》(李源祚, 禹樂基 《濟州道》, 韓國地理研究所 刊行部, 1980)
- 《耽羅誌》(張寅植,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89)
- 《大同地志》(金正浩 編,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6)
- 《梅溪先生文集》(李漢震, 金永吉 譯, 제주문화 影印本, 1998)
- 《續陰晴史》(金允植, 濟州文化院 影印本, 1996)
- 《耽羅誌》(南萬里,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89)
- 《耽羅紀年》(金錫翼, 瀛洲書館, 1918)
- 《增補文獻備考》(弘文館 纂輯 校正, 1908)
- 《濟州島實記》(濟州島實蹟研究社編輯部, 1936)
- 《增補耽羅誌》(淡水契, 1954)
- 《延安李氏家乘》
- <業武康士喆妻高氏表節碑>
- <節婦高氏設置香火勸善錄>
- <節婦高氏第二次設置香火勸善錄>
- 《濟州民謠集》(金永三 編, 서울·중앙문화사, 1958)
- 《濟州島民謠研究》(上)(金榮敦, 一潮閣, 1965)
- 《濟州島傳說》(玄容駿, 瑞文文庫, 1976)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 《韓國口碑文學大系》(9-1(1980), 9-2(1981), 9-3(1983)), (玄容駿·金榮敦,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濟州說話集成》(金榮敦 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濟州道傳說誌》(濟州道, 1985)
- 《濟州道民謠解說》(洪貞杓, 제주문화, 1963/2001)
- 《신화와 전설》(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1)
- 《濟州島の民謠》(高橋亨, 寶蓮閣, 1979)

▲ 辭典類

- 《光州千字文》(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84)
- 《大漢韓辭典》(張三植 編, 進賢書館, 1964)
- 《東國正韻》(서울대학교대학원, 通文館, 1958)

- 《石峰千字文》(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84)
- 《新字典》(朝鮮光文會編纂, 1915)
- 《字典釋要》(永昌書館, 1943)
- 《洪武正韻譯訓》(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 《訓蒙字會》(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83)
- 《漢字古音辭典》(B. Karlgren, 亞細亞文化社, 1975)
- 《국어대사전》(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출판사, 1999)
-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1981)
-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2002)
-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 《큰사전》(한글학회, 을유문화사, 1947)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1992)
- 《朝鮮語大辭典》(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 角川書店, 1987)
- 《濟州語辭典》(濟州道, 1995)
- 《濟州島方言研究》(제1집 자료편, 玄平孝, 精研社, 1962)
- 《大韓植物圖鑑》(이창복, 鄉文社, 1999)
- 《식물학대사전》(송주택,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5)
- 《濟州植物圖鑑》(증보판)(濟州道, 1992)
- 《濟州自生植物圖鑑》(이영노 외, 여미지식물원, 200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濟州史人名事典》(金燦洽, 濟州文化院, 2002)

▲ 論 著

- 김길홍, <중산간 개발과 보전 및 이용방향>, 《제주도》(통권 101호), 제주도, 1997.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민속원, 2002.
-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도서출판 이어도, 2002.
-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 현암사, 1997.
- 김평윤, 《평화와 건반》, 제주문화, 2004.
- 北齊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北齊州郡의 文化遺蹟(I)-先史·歷史》, 1998.

- 서재철, 《제주도야생화》, 일진사, 2004.
- 石宙明, 《濟州島關係文獻集》, 서울신문사출판국, 1949.
-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 庚喆仁, <제주사람들의 文化的 正體感>, 《耽羅文化》 제5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 研究所, 1986.
- 윤치부 註解, 《표히록》, 도서출판 박이정, 1998.
- 이남덕, <제주무가의 어원학적 고찰>, 《제주도신국》(이남덕·현용준 글, 김수남 사진), 열화당, 1989.
- 李成俊, <설문대할망說話研究>, 《國文學報》 10集,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0.
- 李崇寧, 《新羅時代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 塔出版社, 1978.
- 이원진 저·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李殷相, 《耽羅紀行》,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 任東權, <선문대할망 說話考>, 《제주도》 17호, 제주도, 1964.
- 張籌根, <濟州島女神考>, 《濟州文化》 創刊號, 全國文總濟州支部, 1957.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張漢喆 著 鄭炳昱 譯, 《漂海錄》, 汎友社, 1979.
- 전국문화원연합제주도지회, 《옛 제주인의 표해록》, 2001,
- 제주도, 《제주도》(도승격 50주년 통권 100호 기념특집호), 1996.
- 濟州道, 《濟州道誌》, 1999.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1976.
- 제주도·제주도종합개발계획위원회, <濟州綜合10個年開發計劃草案>, 1970.
- 제주도청여직원회, 《영산홍》 3호, 1997.
- 제주발전연구원, 《선홍동백동산,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1998.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市의 옛터》, 1996.
- 조선총독부, 《生活狀態調查》(濟州島), 1929.
- 최기홍 옮김, 《최부표해록》, 敎養社, 1997.
- 崔溥·崔基泓 譯, 《漂海錄》, 삼화인쇄주식회사, 1979.
- 許椿,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전규태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백문사, 1993.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창작과 비평사, 1983.

玄平孝, <地名을 통해서 본 耽羅言語의 源流>, 《濟友文化》 제4호,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총학생회, 1990.

